

韓國經濟開發計劃의 方向

—第2次 5個年計劃을 中心으로—

吳 相 洛

.....<目 次>.....

- I. 總說的인 문제점
 - 1. 序
 - 2. 總花主義에 대한 反省
 - 3. 計劃目標와 手段의 適合性問題
 - 4. 戰略變數의 合理性
 - II. 投資財源의 調達과 그 문제점
 - 1. 第1次 5個年計劃 投資計劃의 內容과 實績
 - 1) 投資計劃의 內容
 - 2) 投資實績
 - 2. 第2次 5個年計劃의 投資水準 및 財源 上의 문제점
 - 1) 投資規模와 그 문제점
 - 2) 投資財源의 調達과 그 문제점
 - III. 投資配分과 그 문제점
 - 1. 投資配分의 內容
 - 2. 投資配分上의 문제점
 - 1) 全般的인 문제점
 - (1) 投資配分의 基準에 관한 문제점
 - (2) 投資對象業種의 選定에 관한 문제점
 - (3) 投資와 產出效果間의 時差問題
 - 2) 部門別 문제점
 - (1) 農林漁業部門投資上의 문제점과 對策
 - (2) 鑛工業部門 投資計劃의 문제점과 調整
 - (3) 社會間接資本 投資計劃의 補完
 - IV. 對外去來上의 문제
 - 1. 第1次 5個年計劃과 實績
 - 2. 第2次 5個年計劃의 主要內容
 - 1) 總括
 - 2) 財貨및 用役去來
 - (1) 商品輸出計劃
 - (2) 商品輸入計劃
 - (3) 貿易外收支
 - 3) 移轉支出
 - 4) 資本去來
 - (1) 長期資本導入計劃
 - (2) 元利金償還計劃
 - 5) 海外貯蓄
 - 3. 對外去來上의 문제점
 - 1) 輸出入計劃에 있어서의 문제점
 - 2) 貿易外收支에 있어서의 문제점
 - 3) 資本去來에 있어서의 문제점
 - (1) 總括——外資導入規模의 問題
 - (2) 借款導入條件의 改善과 直接投資 誘致의 增大
 - (3) 導入될 外資의 效率의 使用을 위한 內資의 確保
 - (4) 對外的 與件의 檢討
- V. 人口 및 雇傭計劃上의 문제점
 - 1. 經濟發展과 人的資源
 - 2. 第1次 5個年計劃中 人口・雇傭部門의 計劃 및 評價
 - 1) 人口部門
 - 2) 勞動力 및 雇傭部門
 - 3) 人口・雇傭部門의 實績評價와 問題점
 - 3. 第2次 5個年計劃中 人口・雇傭部門의 計劃內容과 그 문제점
 - 1) 計劃內容
 - 2) 計劃의 主要政策手段
 - 3) 問題점
 - (1) 人口增加率의 鈍化
 - (2) 人口의 都市集中
 - (3) 勞動力人口 및 雇傭의 增大
 - (4) 完全失業率의 감소 및 僞裝失業에 대한 對策

I. 總說의인 문제점

1. 序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自立經濟의 確立」을 基本目標로 하여 着手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은 第 1 次計劃의 執行을 終了하고 第 2 次 計劃의 實施에 들어갔다. 第 2 次 5 個年計劃도 第 1 次 5 個年計劃과 같이 工業化의 基盤造成에 計劃의 主點을 두고 있으며 同計劃이 成功的으로 遂行되면 第 3 次 5 個年計劃(1972~76 年)에서는 本格的인 工業化를 推進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第 2 次計劃은 計劃作成의 方法 및 技術등에 있어서 第 1 次計劃에 比하여 많이 變化, 發展하였던 것이다. 즉 第 1 次計劃은 그동안 持續되어온 他力依存的인 經濟成長을 計劃的 自立的成長으로 轉換시킴으로써 우리나라 經濟에 큰 轉機를 마련하였으나 計劃의 內容 및 作成方法에 있어서는 아직도 初期的인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執行過程에 있어 적지않은 試行錯誤를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 第 2 次計劃에서는 第 1 次計劃의 樹立 및 執行時에 얻은 經驗을 土臺로 하여 計劃作成의 技術을 훨씬 발전시킴과 동시에 1980 年代 까지의 經濟長期豫測을 행함으로써 1981 年에는 經濟的自立(貿易收支의 黑字示顯)과 所得水準의 200 弗 超過가 達成되리라는 豫定아래 計劃期間中の 諸目標을 設立하였던 것이다.

第 2 次計劃의 作成은 總量計劃, 部門計劃 및 事業計劃의 세가지 過程을 통하여 행하여졌다. 總量計劃은 $Y=C+I+E-M$ ($Y=所得$, $C=消費$, $I=投資$, $E=輸出$, $M=輸入$)이라는 GNP 方程式에 依據하여 세워졌으며 部門計劃은 産業聯關分析에 의하여 作成되었고 事業計劃은 各 「프로젝트」에 대하여 投資優先順位를 策定한 다음 그중 業種別投資配分額과의 對照를 통하여 投資對象「프로젝트」를 選定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獨立된 作業을 거쳐서 이루어진 세가지 計劃을 綜合的으로 比較함으로써 計劃의 實現可能性을 「체크」하였던 것이다.

위와같이 第 2 次計劃은 매우 科學的인 方法과 訓練된 作業에 의하여 作成됨으로써 第 1 次計劃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의 經濟計劃에 비하여도 우수성을 保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精巧하게 作成된 計劃이라 하더라도 그 內容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음으로써 實行上 상당한 補完, 調整이 要望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第 2 次計劃의 문제점과 그 補完方法을 檢討하여 그중 一般的인 것을 本章에서,

그리고 其他의 것은 章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流通構造上の 問題點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大學校 商科大學附設 韓國經營研究所刊『經營論集』第2卷 第1號에 실린 拙稿「韓國「마케팅」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에서 充分히 言及하였으므로 本論文에서는 省略기로 하였다.

2. 總花主義에 대한 反省

第2次計劃은 期間中の 主要計劃目標로서 ①食糧의 自給 ②工業의 高度化와 工業生産의 倍加 ③7億弗의 輸出達成(뒤에 10億弗로 修正) ④雇傭增大 및 人口抑制 ⑤國民所得의 劃期的인 增加 ⑥人的資源의 培養과 技術向上등의 6個項目을 設定하고 있다.

그런데 이 6個項目의 計劃目標를 자세히 살펴보면 第2次計劃은 우리나라의 經濟全般에 걸쳐 同等한 比重으로 발전시킬 것을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第2次計劃은 農業도 발전시키고 工業도 발전시키고 또 輸出의 劃期的인 增加도 이룩하는 등 오늘날 우리 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거의 모든 問題점을 들어 그 解決策에 가까운 것들을 計劃目標로서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國民經濟中 어느 한 部門도 重要하지 않은 部門이란 없으며 또 各部門은 서로 서로 有機的인 關聯을 갖고 있어 同時的發展이 要望되고 있음도 事實이다. 그러나 投資活動에 쓸 수 있는 可用財源에는 一定한 限度가 있는바 이러한 限度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넘어서 經濟의 모든 部門에 投資의 力點을 둔다는 것은 자칫하면 어느 한 部門도 計劃답게 計劃을 推進하지 못할 가능성을 內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計劃이 經濟全般에 걸쳐 非常한 意慾을 가질 때 그 計劃은 「갯치·프레이즈」의 效果를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第2次計劃의 總花主義의 性格은 예컨대 製造業 그 自體內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第2次計劃은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하여 生産財部門에 投資의 力點을 기울이는 한편 消費財部門에 대하여는 消費財部門대로 輸出增大 또는 雇傭增大등의 見地에서 投資의 力點을 두고 있어 結果的으로는 製造業全般에 걸쳐서 同等한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와같이 볼 때 第2次計劃은 計劃目標의 羅列的 設定과 財源의 限定性 때문에 兩者間에 相異한 蹉跌이 發生할 것으로 推理되며 만일 이러한 推論에 一般性이 設定된다면 早速히 그에 대한 補完策을 마련하여 問題점의 發生을 初期的인 段階에서 除去해야 할 것이다.

3. 計劃目標와 手段間的 適合性問題

叙上한 바와 같이 第2次計劃은 매우 多角的인 計劃目標을 設定함으로써 工業化基盤造成의 決意를 굳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目標을 이룩하기 위하여 構想된 計劃手段을 보면 個中에는 現實性을 떠나서 意識的으로 目標에 妥當性을 賦與하도록 손질된 痕跡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 볼 수 있다.

그 두드러진 예를 들면 人口抑制과 輸出增大등이다. 第2次計劃은 人口增加率을 現 2.7%의 水準에서 1971年에는 2.0%로 抑制하도록 計劃하고 그에 必要한 여러가지 政策手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 2.0% 水準에로의 人口抑制라는 目標設定이 經濟成長과 關聯하여 볼 때 아무래도 人爲的이란 느낌을 強하게 줄 뿐만 아니라 그를 實現하기 위한 手段에 있어서도 너무 安易한 印象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人口計劃에 있어서 과연 5年 동안에 人口增加率을 2.0%水準까지 抑制할 수 있겠는가 하는 不安感을 우리는 느끼며 이러한 不安感이 거의 支配的이라고 할 때 그러면 2.0%라는 人口抑制計劃은 1人當 GNP를 政府가 公約한 200弗 水準으로 上昇시키기 위한 計算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또 商品輸出計劃을 살펴 보면 1966年의 2.5億弗水準의 輸出 實績을 期間中 每年 50~60百萬弗씩 增大시켜 1971年에는 5.5億弗로 倍增시킬 것을 計劃하고 있다. 이러한 計劃設定은 과거 특히 第1次計劃期間中の 輸出增加率을 根據로 하여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第1次計劃과 같은 높은 輸出增加率이 第2次計劃期間에도 별 지장없이 實現되리라고 展望하는 것은 安易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疑懼은 뒤에 政府가 1971年의 輸出目標額을 10億弗로 다시 倍增시킴으로써 한층 짙게 되고 있는 것이다.

4. 戰略變數의 合理性

第2次計劃은 資本係數 投入係數 및 投資基準 등과 같은 第1次計劃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戰略變數를 사용하여 計劃을 計量化·精巧化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戰略變數는 제각기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하면 그것이 計劃全體를 흔들리게 할 우려도 또한 없지 않는 것이다.

문제점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먼저 資本係數에 관하여 보면 第2次計劃은 期間中の 年平均資本係數를 2.77로 잡고 이것과 經濟成長率 7%를 基準으로 하여 「매크로」模型을 作成하고 있다. 그런데 資本係數를 2.77로 잡고 있는 때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計劃當局에서도 是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資本係數算定에 使用된 資料에는 不正確한 것이 더러 있어 信憑性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실사 2.77이라는 數值가 正確한 資料에 依據하여 算定된 것이라 하더라도 後述하는 바와 같이 第1次計劃期間中の 成

長率과 資本形成의 函數關係에서 얻어지는 資本係數에 比하면 높은 傾向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 곳에서 말하는 資本係數는 限界資本係數이기 때문에 年度에 따라 流動的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基準으로 投資·貯蓄등을 樹立할 때에는 실사 計劃期間 全體에 걸쳐서는 거의 適正한 投資規模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年度別로는 여러가지 蹉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投入係數에 관하여 보면 第1次計劃은 韓銀이 作成한 1960年 및 63年의 産業聯關表를 基礎로 하여 그에 部門別 修正을 加하여 얻은 投入係數를 사용하여 部門計劃을 作成하였다. 修正作成은 電力·鐵鋼·石油·石炭製品部門에서 豫想되는 技術變動을 감안하여 投入係數에 손질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修正이 말로는 쉬운 것이지만 實際로는 여간 難點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莫大한 努力을 기우려 修正을 加하더라도 그 結果의 合理性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産業聯關表에 依據하여 經濟를 豫測할 때에는 먼저 最終需要部門이 그 豫測值처럼 變化한 경우에 內生部門은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살핀다. 그런데 이와같은 두 過程의 作業은 다 같이 一定한 프로젝션(projection)이 先行됨으로써 可能的 까닭에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作用하게 된다. 따라서 한 過程의 作業도 아니고 두 過程의 作業이 結合되어·비로소 投入係數의 修正이 이루어 질 때 그에는 實로 많은 人爲的要素가 內包될 것이고 따라서 그 合理性이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第2次計劃은 事業計劃의 作成時 收益費用比率(benefit-cost ratio)을 主基準으로 하였다. 收益費用比率의 자세한 說明은 後述하겠거니와 다만 이때의 收益은 投資의 直接效果만이 포함되고 間接效果는 考慮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사 同一한 業種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間에 效果의 差異가 있을 때는 그 實效가 低減된다. 또 같은 性質의 「프로젝트」를 比較選定할 때에도 價格에는 潛在價格(shadow price)이 考慮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作業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II. 投資財源의 調達과 그 문제점

經濟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가장 犯하기 쉬운 過誤는 投資規模의 過大한 計上이다. 이러한 現象은 成長을 最大限으로 高度化하려고 하는 意慾에서 나온 것으로서 오늘날 거의 모든 後進國 經濟計劃에서 우리는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經濟成長은 投資의 增加函數로서 把握할 수 있으니 만큼 그 增加函數로서의 經濟成長을 高度化하기 위하여 投資를 極大化한다는 것은 充分히 首肯할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財源捻出能力을 초과하여

投資計劃을 세운다는 것은 適正水準의 投資計劃에 比하여 成長을 鈍化시킬 수도 있고 또 豫期치 못한 여러가지 副作用을 誘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計劃樹立에 있어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것은 急速한 經濟成長이 投資規模의 擴大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편에는 既存의 投資水準을 가지고도 配分の 適正化에 의하여 成長의 高度化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投資擴大는 既存의 投資基準이 어떠한 障礙에 의하여 過小할 때 意義를 갖는 것으로서 投資規模가 그 나라의 財源捻出能力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意義가 減殺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第1次 및 第2次 5個年計劃에 있어서 다 같이 過大한 投資計劃으로 因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惹起되고 있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第1次 5個年計劃에 있어서는 高度成長政策을 追求하는 나머지 過大한 投資計劃이 立案되기에 이르렀었고 그 結果 執行過程에 있어서 財源捻出도 적지않은 摩擦이 일어남으로써 1963年의 補充作業에서 目標成長率을 年 7%에서 5%로 修正하게 되었고 政策基調 또한 「成長의 高度化」에서 「安定的成長」으로의 轉換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 뒤 安定的成長은 해마다 經濟政策의 基調를 形成하게 되었고 第2次 5個年計劃의 立案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政策基調 위에서 推進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政策的努力에도 불구하고 그 裏面에 強力하게 作用하였던 成長促進의 興望때문에 完成된 第2次 5個年計劃의 實質內容은 여전히 過大한 投資計劃을 內包함으로써 計劃遂行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第1次 5個年計劃上の 投資計劃의 內容 및 實績을 살펴보고 第2次 5個年計劃上の 投資計劃의 문제점을 吟味하면 다음과 같다.

1. 第1次 5個年計劃 投資計劃의 內容과 實績

1) 投資計劃의 內容

第1次 5個年計劃은 1961年 價格基準으로 計劃期間中 總 32,145 億원의 投資規模를 策定하였다. 各年度의 投資額은 <第2-1表>와 같으며 各年度投資額의 GNP에 대한 比率 즉 各年度의 投資率은 1962年 20.1%, 1963年 23.0%, 1964年 24.1%, 1965年 23.3%, 1966年 22.7%로서 計劃期間中 年平均 22.6%의 投資率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22.6%의 投資率은 그 當時(計劃樹立前後)에도 累次 指摘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經濟與件에 비추어 보아 너무 意慾의인 水準이었음을 否認할 수 없었다. 즉 22.6%의 投資率은 같은 亞細亞 後進國의 投資水準에 比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第 1 次 5 個年計劃의 年度別 投資規模 (1961年價格)

<第 2-1 表>

單位：10億원

	1962	1963	1964	1965	1966	1962~66
投資額 (A)	493.1	599.8	673.7	704.3	743.6	3,214.5
G N P (B)	2,451.7	2,609.7	2,800.2	3,018.6	3,269.1	14,150.3
A/B(投資率)	20.1	23.0	24.1	23.3	22.7	22.7

資料：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나라의 投資實績 즉 1953~61 年의 年平均投資率 12.9%에 比하면 非現實的이라 할 만큼 높은 水準이었던 것이다.

亞細亞諸國의 投資率推移

<第 2-2 表>

單位：%

	1950	1953	1958	1960
버 마	9	20	20	18
시 론	10	11	15	15
대 단	—	17	18	21
日 本	—	24	28	35
馬 聯	—	10	13	15
비 율 빈	8	8	9	10
泰 國	—	—	15	17

資料：「유엔」統計年鑑

<第 2-3 表>

1953~60年의 投資率推移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53~60平均
16.4	12.7	12.3	11.1	16.4	13.7	11.0	10.4	12.5	12.9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위와같이 高率의 投資計劃을 立案하게된 所以는 말할 것도 없이 年間 7.1%의 經濟成長을 成就하려는 努力에서 나온 것으로서 만일 限界資本係數를 3이라고⁽¹⁾ 前提할 때 年間 7.1%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GNP의 20%以上이 投資되어야 한다는 計算이 되는 것이며⁽²⁾ 上記한 第 1 次 5 個年計劃의 投資規模는 이러한 計算根據에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第 1 次 5 個年計劃 投資計劃의 財源面을 보면 <第 2-4 表>와 같이 32,145億의

(1) 第 1 次 5 個年計劃에 依據하여 計劃期間中의 年平均資本係數를 算定하였던바 3.4이었다.

(2) 各年度의 投資率平均은 <第 2-9表>에 掲載한 바와 같이 19.0이다.

42.1%에 해당하는 13,547 億원을 國內貯蓄에 의하여 充當하고 나머지 18,598 億원(57.9%)을 海外貯蓄(外國援助 및 借款)에 의하여 充當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 國內貯蓄計劃을 살펴 보면, 1962 年은 904 億원의 國內貯蓄을 達成하도록 計劃하였는데 同 貯蓄額은 投資規模의 10.3%에 해당하는 것이며 GNP의 3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計劃期間中 年平均 51.4%의 貯蓄增加를 期함으로써 1966 年에는 4,230 億원의 國內貯蓄을 實現하여 當該年度 投資規模의 56.9% 즉 過半을 國內財源으로 充當하도록 計劃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貯蓄率은 1962 年의 3.7%에서 1966 年에는 12.9%로 增加하게 되는 것이다.

第 1 次 5 個年計劃의 投資源泉

<第 2-4 表>

單位: 10 億圓

	1962	1963	1964	1965	1966	1962~66
總 投 資(A)	493.1	599.8	673.7	704.3	743.6	3,214.5
國內總貯蓄	90.4	190.2	288.8	362.3	423.0	1,354.7
海外貯蓄(B)	402.7	409.6	348.9	342.0	320.6	1,859.8
B/A (%)	81.7	68.8	57.1	49.0	43.1	57.8

資料: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第 1 次 5 個年計劃의 投資率, 貯蓄率

<第 2-5 表>

單位: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2~66 平均
貯 蓄 率	3.7	7.3	10.3	12.0	12.9	9.0
投 資 率	20.1	23.0	24.1	23.3	22.7	22.6
貯 蓄 增 加 率	52.2	110.4	51.8	25.8	16.8	51.4

資料: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2) 投資實績

叙上한 바와 같이 第 1 次 5 個年計劃의 投資計劃은 너무 意慾的이라는 印象을 질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疑懼가 1962~66 年의 執行過程에서 現實적으로 나타남으로써 計劃樹立의 非妥當性을 들어냈던 것이다.

즉 第 1 次 5 個年計劃은 計劃期間中 年平均 22.6%의 投資率達成을 目標하였던 것이다. 1962~66 年의 實績投資率은 <第 2-6 表>와 같이 年平均 16.0%를 示顯함으로써 計劃投資率에 比하여 6.6%가 낮았던 것이다. 그런데 16.0%의 實績投資率은 1953~60 年의 年平均投資率 12.9%에 比하면 3.1%나 높은 것으로 이것은 投資計劃이 그만큼 過大하게 策定되었음을 反證해 주는 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第 1 次 5 個年計劃의 實績投資率

<第 2-6 表>

單位：%

	1962	1963	1964	1965	1966	1962~66平均
實績投資率	12.3	20.0	14.4	13.9	19.0	16.0
計劃投資率	20.1	23.0	24.1	23.3	22.7	22.6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1953~61 年 期間中의 投資率實績推移를 살펴보면, 1951 年을 例外로 하고는 大體로 12~13%水準을 下廻하거나 保合하고 있는데 이것을 猝地에 20%水準以上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傾向上으로 보아 至難한 것이었다 할것이다. 물론 1963 年에는 20.0%의 實績을 올린 바는 있으나 그래도 計劃投資率에 比하여 3.0%가 낮았고 1964과 65 年에는 計劃에 比하여 무려 10%가 낮은 實績을 記錄함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던 위와 같은 實績投資率이 低調하였던 原因은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投資計劃의 過大한 計上 外에도 ①國內貯蓄水準의 低位 ②海外貯蓄導入의 不振 ③投資與件의 不備등을 그 要因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國內貯蓄力이 弱하기 때문에 投資財源의 相當部分을 援助·借款등의 形態에 의하여 海外貯蓄에 依存하고 있다. 1953~61 年의 期間中 國內貯蓄水準은 대체로 GNP의 4.1%에 達하였으며 總投資의 32.0%가 國內貯蓄에 의하여 充當되었고 나머지 68.0%는 海外貯蓄에 의하여 充當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第 1 次 5 個年計劃은 計劃期間中 國內貯蓄率을 9.0%의 水準까지 上昇시킴으로써 投資의 對外依存度 輕減(投資의 自立度提高)을 期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貯蓄水準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計劃期間中 實績投資率이 크게 上昇되지를 못하였고 이러한 低貯蓄水準이 低投資率의 가장 큰 原因을 이루었던 것이다.

貯蓄은 所得中 消費의 殘餘分인 만큼 $(S=Y-C)$, 貯蓄의 增大는 消費抑制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다. 消費抑制은 平均 및 限界消費性向의 두가지 側面에서 把握된다. 前者는 總所得에 대한 消費水準 그 自體를 낮추는 것이며, 後者는 所得의 增加分중 消費되는 部分을 減少시키는 것이다. <第 2-7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61 年의 期間中 우리나라의 平均消費性向은 대체로 0.95 水準을 上下하고 있었는데 第 1 次計劃期間中 消費抑制에 注力한 結果 1966 年에는 0.88로 低下되었으나 아직도 20%程度의 投資水準을 國內貯蓄으로 充當하기에는 消費水準이 相對적으로 너무 高率이었던 것이다. 한편 限界消費性向은

1955~61年의 期間中에는 대체로 1을 上廻함으로써 負의 限界貯蓄을 示顯하였으나 1966년에는 0.732를 示顯하였던 것이다.

消費性向의 推移

<第 2-7 表>

單位：%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平均消費性向	0.951	1.013	0.945	0.950	0.961	0.984	0.962	0.985	0.931	0.930	0.924	0.883
限界消費性向	0.971	1.213	0.713	1.070	1.117	1.186	0.852	1.119	0.796	0.927	0.891	0.732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海外貯蓄은 第 1次計劃期間中 投資에 대한 構成比面에서는 대체로 計劃水準에 接近하였으나 그 規模에 있어서는 美國援助의 漸減傾向과 借款導入의 不振 등으로 인하여 計劃水準에 훨씬 未達하였던 것이다.

投資中 海外貯蓄의 比重推移

<第 2-8 表>

單位：%

	總資金源泉	國內貯蓄	海外貯蓄	海外로부터의 純借入	海外로부터의 純移轉	統計上不一致
1953	100.0	56.1	43.9	11.6	32.3	—
1954	100.0	52.6	47.4	9.5	37.9	—
1955	100.0	37.6	62.4	12.8	49.6	—
1956	100.0	-16.7	116.7	-8.3	125.0	—
1957	100.0	35.1	64.9	0.0	64.9	—
1958	100.0	35.7	64.3	-8.7	73.0	—
1959	100.0	33.3	66.7	-3.8	70.5	—
1960	100.0	20.2	83.7	-4.8	87.5	-3.9
1961	100.0	34.4	68.8	-4.8	73.6	-3.2
1962	100.0	6.5	90.3	11.3	79.0	3.2
1963	100.0	38.7	61.3	21.5	39.8	—
1964	100.0	48.1	54.8	5.9	48.9	-2.9
1965	100.0	44.3	51.9	-1.5	53.4	3.8
1966	100.0	57.7	39.6	6.6	33.0	2.7

資料：財務部, 『우리나라의 資金循環과 貯蓄概觀』

2. 第 2次 5 個年計劃의 投資水準 및 財源上의 문제점

1) 投資規模와 그 문제점

第 2次 5 個年計劃은 計劃期間中 總 9,800 億원(1965年 價格)의 投資計劃을 마련하고 있다. 同投資額은 期間中 GNP 合計額의 19.1%에 達하는바 이 投資水準은 비록 第 1次計劃의 投資水準 22.6%에 比하면 낮은 편이나 第 1次計劃의 實績投資率인 16.0%보다는

第2次 5 個年計劃의 投資計劃 (1965年價格)

<第2-9 表>

單位 : 10億圓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71合計
G N P (A)	892.34	954.80	1,021.64	1,093.15	1,169.67	5,131.60
總 投 資(B)	159.81	176.79	195.03	215.44	233.00	981.07
國內貯蓄(C)	78.68	94.57	118.17	143.09	168.40	602.19
B/A(投資率)	17.9	18.5	19.1	19.7	19.9	19.0 ¹⁾
C/A(貯蓄率)	8.8	9.9	11.6	13.1	14.4	11.6 ¹⁾

資料 : 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註 : 1) 期間中平均值인.

3.1%가 높은 것이다.

19%의 投資水準을 策定하게 된 根據는 다음과 같다. 즉 第2次計劃은 期間中 2.77의 (限界)資本係數를 想定하고 이러한 資本係數아래 年間 7%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GNP의 19% 程度가 投資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計量的인 根據外에도 政府는 ①生産財工業의 擴充 ②農漁業의 近代化 ③社會間接資本의 擴充등에 의하여 第1次計劃에 比하여 높은 投資水準이 要望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77의 資本係數想定이 거의 正確한 現實의 反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年間 7%의 經濟成長이 第1次計劃期間中の 實績成長率 8.5%에 比할 때 意慾的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두가지 指標를 놓고 볼 때의 19%의 投資計劃은 결코 過大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第2次計劃이 安定成長을 追求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第1次計劃에서와 마찬가지로 投資의 過大計上을 內包하고 있다는 말은 과거의 投資實績과 그 趨勢에 依據하여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第1次計劃의 實績投資率 16.0%를 果然 第2次計劃期間中에 19% 水準으로 引上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1966年에 第1次計劃의 最終年度에 즈음한 集中的投資가 奏効하여 投資率이 18%를 上廻하였지만 果然 第2次計劃期間中 投資率이 每年 0.6~0.7%씩 上昇하여 1971年에는 19.9%를 記錄하게 될 것인가에 問題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問題점의 提起는 資本係數 2.77을 正確한 하나의 與件으로 받아 들였을 때의 일이고 만일 資本係數 2.77에 대하여 流動性 내지는 不適正性을 賦與해 본다면 投資計劃에 대하여 여러가지 問題점이 발생하게 된다.

資本係數 2.77에 대하여 不適正性을 생각하게 된 것은 과거에 있어서 (특히 第1次計劃期間中에 있어서)의 成長率과 投資率과의 函數關係에서 보아 果然 資本係數가 3程度이 있겠느냐 하는 疑念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叙上한 바 있듯이 第1次計劃期間中에 年平

均 16.0%의 投資水準에 의하여 年平均 8.5%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는바 만일 이 投資率과 成長率에 集計上 錯誤가 없다면 「해로드」(R.F. Harrod)의 成長方程式 $GC=S$ 에 의하여 資本係數를 1.8~1.9로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가 推定한대로 資本係數가 3程度에 틀림이 없다면 과거의 投資水準에 의하여 어떻게 8%이상의 高度成長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으며, 또 만일 資本係數推定이 올바르지 못하였다면 더우기 資本係數가 3정도가 아니고 위에서 말한 것 처럼 2未滿이라면 20%水準의 投資計劃은 投資의 過大計上이라는 計劃樹立의 不適正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물론 (限界)資本係數는 年度에 따라 可變인 것이며, 또 現實의 資本係數를 成長率과 投資率을 所與로 하고 $GC=S$ 라는 素朴한 函數式에 의하여 計算한다는데에 無理가 없는 것도 아니나 위와 같이 第1次計劃期間中 計劃보다 훨씬 낮은 投資水準에 의하여 計劃보다 높은 經濟成長을 達成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資本係數推定에 많은 懷疑를 갖게 함이 사실인 것이다.

2) 投資財源의 調達과 그 문제점

第2次5個年計劃은 9,800億원의 投資源中 61.5%에 해당하는 6,029億원을 國內貯蓄에 의하여, 그리고 나머지 3,772億원(38.5%)을 海外貯蓄에 의하여 調達하도록 計劃하고 있다.

그리고 6,029億원의 國內貯蓄을 實現하기 위해서 國內貯蓄率을 期間中 年平均 11.6% 示顯하도록 計劃하고 있다(<第2-9表>參照). 限界貯蓄率은 期間中 年平均 30.9%를 示顯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第1次計劃期間中の 限界貯蓄率 10.7%의 約 3倍의 水準인 것이다.

한편 國內貯蓄을 主體別로 보면 6,029億원의 63.6%에 해당하는 3,839億원은 民間貯蓄이고 나머지 36.4%에 해당하는 2,190億원은 政府貯蓄이다.

한편 第2次計劃期間中の 海外貯蓄導入計劃을 보면 <第2-12表>와 같다. 즉 3,772億원의 海外貯蓄은 弗貨로 1,421百萬弗에 達하는데, 이를 財源別로 보면 長期資本導入이 835.0百萬弗이고 AID 支援援助 및 PL 480 剩餘農產物援助는 354.6百萬弗, 그리고 對日請求權資金이 150百萬弗, 그 밖에 技術援助, 民間贈與등이 398.9百萬弗이다. 休戰後 美對韓援助의 中樞가 되어 왔던 AID 支援援助는 1970年을 마지막으로 中斷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으며 剩餘農產物援助도 計劃期間의 後半에 가서는 原棉만을 30百萬餘弗 導入하도록하고있는데 이것 亦是 1970年代 初期에는 完全히 終熄되도록 豫想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第2次計劃의 投資財源調達計劃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內包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자.

投資財源의 調査 (1965年價格)

<第2-10表>

單位：10億圓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71合計
總 投 資	159.81	176.79	195.03	215.44	233.00	980.07 (100.0)
國 內 貯 蓄	78.68	94.57	118.17	143.09	168.40	602.91 (61.5)
海 外 貯 蓄	81.13	82.22	76.86	72.35	64.60	377.16 (38.5)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註：內는 構成比임.

國內貯蓄計劃 (1965年價格)

<第2-11表>

單位：10億圓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71合計
國 內 貯 蓄	78.68	94.57	118.17	143.09	168.40	602.91 (100.0)
政 府 貯 蓄	24.04	29.92	42.33	54.61	68.07	218.97 (36.4)
民 間 貯 蓄	54.64	64.65	75.84	88.48	100.33	383.94 (63.6)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註：內는 構成比임.

海外貯蓄導入計劃

<第2-12表>

單位：百萬弗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71合計
純 海 外 貯 蓄	305.7 (81.13)	309.8 (82.22)	289.6 (76.86)	272.6 (72.35)	243.4 (64.60)	1,421.1 (377.16)
粗 海 外 貯 蓄	358.1	366.4	352.3	342.3	319.4	1,738.5
長 期 資 本 導 入	160.0	175.0	170.0	165.0	165.0	835.0
支 援 援 助	55.0	45.0	35.0	25.0	—	160.0
剩 餘 農 產 物	43.4	42.2	38.7	36.3	34.0	194.6
請 求 權 資 金	30.0	30.0	30.0	30.0	30.0	150.0
其 他	69.7	74.2	78.6	86.0	90.4	398.9
外 換 保 有 元 金 債 還(一)	52.4	56.6	62.7	69.7	76.0	317.4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註：內는 圓貨이며 單位는 10억圓임.

첫째는 第1次計劃에 대해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國內貯蓄增加에 대한 安易한 想定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第2次計劃은 期間中 年平均 11.6%의 國內貯蓄率과 30.9%의 限界貯蓄의 實現을 計劃하였는데 과거의 추세로 보아 國內貯蓄水準을 投資水準에 無理하게

接近시킨 飛躍이 엿보인다. 물론 7%의 經濟成長을 위해서 19%以上の 投資가 不可避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方法에 의해서라도 그 財源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經濟計劃을 樹立・實現하는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財源調達計劃이 順調롭지 못할 것이 豫想될 때에는 문제점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國內貯蓄水準을 意慾적으로 想定할 때 資本主義社會에서는 그 制度的特殊性에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것은 資本主義 經濟計劃은 生産計劃이 그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消費計劃(특히 民間消費計劃)은 國民의 自律的行動에 맡긴채 다만 政府가 一定한 方向으로 抑制・調整하는 것이기 때문에 消費의 殘餘分으로서의 貯蓄은 獨自的인 計劃이 成立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 經濟計劃에서는 政府의 直接的인 消費抑制가 原則적으로 不可能하므로 貯蓄計劃은 成立되기가 어려우며 그것이 計劃이라기 보다는 達成目標나 豫測의性質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國內貯蓄水準을 意慾적으로 策定하였을 때에는 政府貯蓄의 部分이 크게 增大되는 것이 常例인데 이것은 政府가 租稅등에 의하여 어느정도 計劃的인 貯蓄達成이 容易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貯蓄의 主體別計劃에 있어서 政府貯蓄의 意慾的인 計上이 民間貯蓄에 壓力을 加함으로써 兩者間에 摩擦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第2-1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2次計劃은 國內貯蓄의 36.4%(2,190 億圓)에 達하는 政府貯蓄을 計上하고 있다. 한편 이를 年度別로 보면 1967년에는 政府貯蓄이 國內貯蓄에서 占하는 比重이 30.5%이 었으나 期間中 해마다 遞增하여 1971년에는 40.5%로 10%나 增加하도록 計劃하고 있어 貯蓄計劃의 部門別調整의 必要性을 示唆하고 있다. 과거의 政府貯蓄實績을 살펴보면 <第2-13表>와 같이 1963년까지만 해도 政府貯蓄은 負의 貯蓄을 記錄하였으며 1964년부터 正의 貯蓄으로 轉換되었으며 1966년에는 國內貯蓄의 24.0%의 貯蓄實績을 올리고 있는 바 이러한 實績에 立脚하여 볼 때 1971년에 國內貯蓄의 40.5%에 達하는 政府貯蓄을 이룩한다는 것은 대단한 意慾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政府貯蓄은 租稅가 그 財源의 大宗을 이루고 있으므로 政府貯蓄의 擴大는 거의 比例的으로 租稅의 增大를 隨伴하게 될 것인바 그렇게 되면 民間貯蓄力이 그만큼 政府部門으로 吸收되는 結果가 되어 民間貯蓄의 計劃에 蹉跌이 일어날 것은 明白한 것이다.

第2次計劃은 期間中 6,965 億圓의 租稅徵收를 計劃하고 있다. 各年度의 稅收計劃額은 <第2-14表>와 같으며 各年度 稅收額의 GNP에 대한 比率 즉 租稅負擔率은 13.5%로서 1965年の 租稅負擔率 8.8%에 比하여 4.7%나 增加하는 것으로 計劃되고 있는 것이다. 租稅收入이 投資支出에만 充當되는 것이 아니고 政府의 諸經常費의 財源의 하나가

政府·民間別 國內貯蓄實積

<第2-13表>

單位：10億圓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國內貯蓄	5.68	-2.07	10.93	10.27	8.66	3.89	11.32	5.17	33.67	48.87	60.75	132.32
民間	8.37	2.35	16.92	16.70	14.60	8.90	16.62	10.03	34.99	45.33	46.73	92.24
政府	-2.69	-4.42	-6.01	-6.43	-5.94	-5.01	-5.30	-4.86	-1.32	3.55	14.02	29.08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註：經常價格基準임.

第2次計劃의 租稅計劃 (1965年價格)

<第2-14表>

單位：10億圓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71合計
租稅收入(A)	108.79	128.64	140.68	152.68	165.70	696.49
G N P (B)	892.34	954.80	1,021.64	1,093.15	1,169.67	5,131.60
A/B×100 (%)	12.2	13.4	13.8	14.0	14.2	13.5 ¹⁾

資料：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
 註：1) 期間中の 平均値임.

되는 것이지만, 計劃書에도 言及되어 있는 바와 같이 第2次計劃期間中에 租稅를 投資財源動員의 主導的手段으로 삼고 보면 政府貯蓄의 意慾的인 計上이 國民의 擔稅力이라는 見地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國民의 擔稅力에 대하여는 여러 學說이 엇갈려 있어 어떤 適正線을 찾기가 힘들다. 어떤 이는 先進國의 租稅負擔率과 比較하여 아직도 擔稅力에 餘裕가 많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生計費分析에 의하여 擔稅力은 限界에 이르고 있다고 主張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果然 擔稅力이 限界에 이르렀는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擔稅力의 適正線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多幸이 없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目的과 能力 밖의 일로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後進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民의 平均의概念에 의한 生計費分析에 의하면 擔稅力이 그 限界에 이르고 있는 느낌이 들며 만일 所得의 不均等配分 또는 偏重化라는 點에 着眼하여 본다면 擔稅力은 아직도 많은 餘裕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租稅負擔率이 上昇하게 되면 不可避的으로 租稅의 逋脫行爲가 增大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階層이 勤勞者들일 것이다. 所得을 事業所得, 財産所得 및 勤勞所得으로 크게 分類하여 볼 때 그 中 勤勞所得의 受取者가 가장 充實한 納稅者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租稅計劃에 蹉跌이 발생하게 될 때 그를 메꾸기 위하여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勤勞所得者에 대한 增稅이다.

擔稅力이라는 見地에서 事業所得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만일 租稅增大가 生産過程에서 退藏되어가는 所得을 對象으로 하여 그것을 政府의 投資支出로 轉換시키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民間의 投資資金의 一部가 政府部門으로 吸收되는 것이라면 租稅에 의한 政府投資財源의 擴大라는 것이 投資主體의 移動이나 投資對象의 變更외의 별다른 意義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租稅를 통한 貯蓄의 投資化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民間의 投資資金이 政府部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회피되어야 한다는 限界가 스스로 設定되는 것이다.

세제는 民間部門의 貯蓄增大와 貯蓄된 資金의 生産的投資를 위한 與件의 造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第2次計劃은 投資財源中 國內貯蓄과 海外貯蓄의 比率이 61.5% : 38.5%로서 第1次計劃(42.1% : 57.9%)과 比較할 때 國內貯蓄의 比重이 크게 높아졌으며 또 國內貯蓄의 過半이 民間貯蓄에 그 財源을 두고 있는 만큼 民間貯蓄의 實現與否가 計劃의 成敗를 가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政府는 金利의 現實化措置를 斷行하였고 企業의 收益性保障, 貯蓄增大運動등에 힘을 씌우므로써 民間의 貯蓄獎勵에 努力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一聯의 努力이 奏效하여 1966년에는 總投資의 40%이상의 水準으로 民間貯蓄을 擴大시키게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여러가지 投資與件의 造成에도 不拘하고 民間貯蓄의 상당部分이 不動產投資등의 非生産的投資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러한 傾向은 民間이 그들의 貯蓄을 金融機關에 預入하거나 生産部門에 投資하는것 보다 不動產등을 買入하는 것이 收益性으로 보아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第2次計劃期間中에는 이러한 非生産的投資에로의 誘因을 除去하는데 努力함으로써 投資의 正常化를 期해야 할 것이며 또 健全한 資本市場의 育成을 이룩하여 企業의 公開化와 貯蓄과 投資間의 媒介機能의 促進을 期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企業은 金融機關을 통한 間接金融과 資本市場을 통한 直接金融을 아울러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6年の 大韓證券去來所 設立을 契機로 하여 證券市場이 開設되었는데 尙今 上場會社가 20餘個社에 不過할 뿐만 아니라 그 去來狀況에 있어서도 매우 不健全함으로써 이를 통한 投資財源의 調達이란 거의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最近의 去來狀況을 보면 <第2—15表>와 같이 1961년까지는 低調하다가 1962년에 가장 큰 規模를 보이고 그뒤 沈滯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2년에 있었던 有名한 證券波動의 結果이며 證券市場은 投機目的에서 오는 지나친 時勢操作에 의하여 市場基調는 混迷相을 거듭하

여 新規資金流入杜絶과 顧客의 市場離脫相을 보였다.

證券去來를 國債와 株式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國債는 1960年以來 큰 激動은 보이지 않고 1964年부터 國債의 新規發行이 杜絶됨으로써 去來額은 크게 縮少되고 있다. 反面 株式은 1962年 5月의 大證株등 資金의 뒷받침이 없는 時勢操作에 의한 異常的 過熱로 絶頂을 이루었으나 이것은 反射的인 下落을 招來하여 [1965年에는 去來量이 10分の1以下로 떨어졌고 1966年에는 政府株式의 公賣로 前年水準을 약간 上廻하였을 따름이다.

여기서 注意하여야 할 事實은 이와같은 規模의 證券去來는 그 全部가 既存株의 去來라

最近의 證券去來狀況

<第 2-15 表>

單位：百萬元

	當日 決濟 去來		清算 去來		合 計		總 額
	株 式	國 債	株 式	國 債	株 式	國 債	
1960	12	431	263	899	275	1,330	1,605
1961	58	475	382	435	440	911	1,351
1962	16,371	777	82,006	44	98,375	820	99,195
1963	5,315	1,104	20,794	—	26,109	1,104	27,213
1964	3,938	707	23,100	—	27,038	705	27,745
1965	1,848	165	7,422	—	9,270	165	9,435
1966	1,647	85	9,513	—	11,160	85	11,245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는 事實이다. 따라서 所得增加와 生産增大를 위한 企業에의 投資資金供給이라는 機能은 全然 斷行하고 있지 못하다. 즉 既存株의 轉賣는 政府 또는 家計의 貯蓄이 相互間에 移轉되는 것으로서 企業에 새로운 資金을 供給하지는 못한다. 證券去來所에서는 물론 既存株의 賣買가 많은 것이 보통이나 株式 또는 社債도 發行하여 民間貯蓄을 吸收할 때에 보다 더큰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째는 海外貯蓄中 長期資本導入計劃이 所期한 대로 이루어 지겠는가 하는 點이다. 第 2次計劃은 期間中 835百萬元의 外國資本을 借款 또는 直接投資의 形式으로 導入할 計劃이다. 그런데 이 835百萬元의 長期資本財導入에 隨伴하여 다음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豫想된다. 하나는 835百萬元의 導入計劃이 과거의 實績으로 보아 매우 過大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9年에 東洋「시멘트」가 DLF 借款을 한 以來 1967年末 現在 7億餘弗의 外資導入이 確定되었는데 그중 실제로 導入한 額數는 3億餘弗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5年동안에 835百萬元의 外資를 導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外資를 導入하자면 그 2倍에 達하는 內資를 必要로 하는바

이러한 所要內資를 適期에 調達하게 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835百萬弗의 外資를 導入하려면 4,500億원以上の 內資를 必要로 한다. 그런데 第2次計劃期間中 들어오는 外資가 835百萬弗에 그치면 그런대로 문제가 적겠으나 지금까지 導入이 確定된 外資中 아직 導入되지 않은 4億弗程度의 外資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다시 3,000億원의 內資가 所要된다는 結果가 되므로 그렇게 되면 第2次計劃期間中の 投資額 9,800億원의 70%以上이 外資導入에 所要되는 內資에 使用된다는 結論이 나오는 것이다.

Ⅲ. 投資配分과 그 문제점

第2次5個年計劃은 第1次計劃과 마찬가지로 産業의 構造的近代化와 自由經濟의 確立을 그 基本目標로 하고 있다. 産業의 構造的近代化란 産業中 第2次産業의 比重을 增大시킴으로써 第1次産業 또는 第3次産業中心의 産業構造를 第2次産業中心으로 變形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第1次→第3次→第2次産業이라는 受援後進國의 典型的形態를 示顯하고 있다. 즉 1966年의 우리나라 産業構造는 第1次産業이 37.9%, 第3次産業이 37.3%, 그리고 第2次産業이 24.8%로서 第1次産業의 比重이 가장 높고 第2次産業의 比重이 가장 낮다. 1955年의 産業構造를 보면 第1次, 第3次 및 第2次産業의 比重이 各各 47.2%, 39.1%, 13.7% 이었는바 이것과 比較하면 1966年의 産業構造는 상당히

各國의 産業構造 (1953~59年平均)

<第3-1表>

單位：%

		第 1 次 産 業	第 2 次 産 業	第 3 次 産 業
英	國	4.6	44.9	50.5
美	國	4.7	38.4	56.9
丁	抹	22.0	34.1	43.9
諾	威	13.3	37.9	48.8
西	獨	7.8	51.7	40.5
和	蘭	11.5	39.4	49.1
이	스	12.2	29.3	58.6
伊	太	23.1	29.8	47.1
日	本	19.8	32.5	47.7
比	律	39.6	18.9	41.5
시	른	51.3	13.7	35.0
泰	國	42.2	17.7	40.1
버	마	42.2	16.0	41.8
臺	灣	33.1	24.6	42.3
印	度	48.1	16.6	35.3
파	키	56.2	17.0	26.8

近代化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도 先進國의 그것에 比하면 後進性を 脫皮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콜린·클라크」(Colin Clark)가 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가 발전할수록 第1次産業에서 第2次産業으로, 그리고 第2次産業에서 第3次産業으로 産業의 比重이 移行하는 것이 先進國産業構造의 一般의 現象인데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①外援에 隨伴한 流通部門의 擴大 ②物的生産部門, 특히 鑛工業部門의 就業機會의 狹少등으로 인하여 第3次産業이 異例의으로 發展되었는바 따라서 産業의 構造的 近代化라는 內容속에는 第2次産業의 擴大와 더불어 第3次産業의 合理的 縮소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合理的 縮少라는 뜻은 第3次産業中 鑛工業의 基盤이 되는 社會間接資本은 最大限으로 擴大시키고 그를 除外한 其他「서비스」業은 相對的으로 縮少시킴으로써 全體的으로 第3次産業의 比重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産業構造改編의 政策的考慮 때문에 第2次計劃은 産業의 分類를 農林漁業과 鑛工業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이라는 새로운 方式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産業構造를 近代化한다고 할 때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工業(製造業)中 生産財部門의 比重을 擴大시키는 것이다. 「호프만」(Hoffman)은 經濟가 發展할수록 工業部門中 生産財部門의 比重이 커지고 消費財部門의 比重이 줄어든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펠드만」(Feldman)은 生産財部門에 投資하는 것이 消費財部門에 投資하는 것 보다 短期的으로는 經濟成長이 낮으나 長期的으로는 높다고 말하고 있다. 또 産業聯關分析에 依據하면 消費財工業에 比하여 生産財部門이 産業間的 連鎖效果가 크다. 이러한 諸 論據에 依據하여 第2次計劃은 工業部門中 生産財部門에 投資의 力點을 두고 있으며 이를 通하여 産業構造의 近代화와 나아가서는 經濟成長의 高度化를 이룩할 計劃인 것이다.

自立經濟의 確立은 對外援關係와 對貿易關係의 두가지 뜻이 있다. 前者는 外援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自活力을 갖자는 것이며 後者는 貿易收支上 慢性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入超現象을 止揚하자는 것이다. 前者의 意味의 自立經濟는 1970年代初에 實現되는 것으로 第2次計劃은 豫定하고 있다. 즉 第2次計劃은 美對韓援助中 AID 支援援助는 計劃期間中 每年 10百萬弗씩 減少하여 1970年の 25百萬弗을 마지막으로 終熄하며 剩餘農産物援助는 1970年代에는 35百萬弗水準으로 減少시키고 70年代初半에는 이것마저 終熄하도록 計劃함으로써 外援依存의 經濟體制에서의 脫皮를 摸索하고 있다.

그리고 貿易上의 入超現象의 除去는 第2次計劃期間中에는 그 程度를 緩和시키는데 그치며 그의 實現은 1980年代에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長期豫測에서 豫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貿易上의 均衡 또는 黑字의 示顯을 위하여 第1次計劃에서와 같

이 第2次計劃은 輸出增大를 強力히 追求하고 있으며 따라서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하여 生産財部門에 대한 集中的投資를 試圖하는 한편 纖維, 食料品등의 比較的 輸出實績이 높은 消費財部門에 대하여도 投資의 力點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第2次計劃은 9,800 億원의 投資資金을 産業別로 어떻게 配分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投資配分の 內容

먼저 投資의 産業別 配分을 보면 <第3-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00 億원의 16.3%에 해당하는 1,599 億원을 農林漁業部門에 配定하고 있으며 30.7%에 해당하는 3,010 億원을 鑛工業部門에, 그리고 나머지 53%에 해당하는 5,191 億원을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業에 配定하고 있다. 이를 좀더 詳細히 보면 製造業에 대하여는 2,835 億원이라는 業種中가장 많은 投資를 配分하였고 農林業에 대하여는 1,103 億원의 投資計劃을 세웠으며 電力에 787 億원, 通信部門에 591 億원, 交通部門에 1,500 億원의 投資를 各各 配分함으로써 社會間接資本에 2,878 億원의 投資計劃을 세웠고 建設業에 대하여는 1,234 億원의 投資를 配分하고 있다.

한편 9,800 億원의 投資計劃을 主體別로 보면 其中 40.9%에 該當하는 4,010 億원은 政府 投資이고 나머지 5,790 億원은 民間投資인 것이다. 政府投資를 다시 産業別로 보면 全投

第2次計劃의 産業別投資配分

<第3-2表> 單位：10億圓

	1967~71年合計		1967~71年合計
農 林 漁 業	159.94(16.3)	社會間接資本其他「서비스」業 合 計	519.12 (53.0)
鑛 工 業	301.01(30.7)		980.07(100.0)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第2次計劃의 政府・民間別投資配分

<第3-3表> 單位：10億圓

(1967~71年合計)

	政	府	民	間	合	計
農 林 漁 業	93.8(59.3)		66.1(40.7)			159.9(100.0)
鑛 工 業	19.9 (6.6)		281.1(93.4)			301.0(100.0)
社會間接資本・其他「서비스」業	287.4(55.3)		231.7(44.7)			519.1(100.0)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註：1965 年價格基準日.

資의 71.6%에 해당하는 2,874 億원을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業에 配定하고 있으며 農林漁業部門에는 938 億원의 投資를, 그리고 鑛工業에는 全體의 不過 4.9%에 해당하는 199 億원의 投資를 計劃하고 있다. 한편 民間投資의 產業別內容을 보면 農林漁業에는 661 億원의 投資가 計上되었고 鑛工業에 대한 投資는 政府投資의 무려 14 倍를 上廻하는 2,811 億원이 計上되었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業에 대한 投資는 2,317 億원으로서 政府投資와 비슷한 水準이었다. 그런데 鑛工業部門에 대한 歴史的인 比重을 占하게 된 까닭은 第1次計劃에서는 鑛工業部門에 대한 政府融資가 적지않은 規模에 達하였으나 (<第3-4表>참조) 第2次計劃에서는 이 部門의 發展을(특히 製造業) 民間의 自立에 期待

第1次計劃의 政府民間別投資配分 (1962~66年合計)

<第3-4表>

單位: 10億원

	政	府	民	間	合	計
農 林 漁 業	145.7(26.3)		408.17(73.7)		554.4(100.0)	
鑛 工 業	315.9(29.4)		760.2 (70.6)		1,076.1(100.0)	
社會間接資本·其他「서비스」業	656.1(41.6)		927.9 (58.4)		1,574.0(100.0)	

資料: 第1次 經濟開發 5 年計劃

註: 1961年 價格基準인

하였기 때문이다.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에 대한 民間投資의 內容은 住宅投資가 701 億원, 電力投資 685 億원, 交通投資 480 億원, 觀光 및 其他 部門의 投資가 452 億원이다. 電力部門에 대한 民間投資 685 億원은 同部門에 대한 總投資 787 億원의 87.0%에 達하는데, 이는 韓國電力의 外資를 主財源으로 한 여러가지 電源開發이 計上되었기 때문이다.

2. 投資配分上的 문제점

第2次計劃의 投資配分上的 문제점으로서는 產業全般에 共有하는 문제와 部門別문제의 두가지가 있다.

1) 全般的인 문제점

全般的인 문제점으로서는 ①投資配分の 基準에 관한 문제 ②投資業種의 選定에 관한 문제 ③投資와 產出效果間의 時差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 投資配分の 基準에 관한 문제점

投資의 配分計劃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節次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즉 먼저 期間中 實施할 各「프로젝트」를 產業別로 立案한 다음 그들 各「프로젝트」가 所要하는 資金額의 算定과 「프로젝트」間의 投資順位の 策定등을 行하고 그런 然後에 投資資金을 各產業에 어

떻게 配定하여야 投資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을 것인가를 研究하여 具體的인 資金配定을 行하는 것이다.

그런데 第2次計劃에서는 비록 粗雜하기는해도 投資優先順位の 策定을 試圖하고 있지만 投資의 配分基準은 미처 設定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A, B, C의 세가지 産業이 있고 그들 各産業에 各各 다섯개의 「프로젝트」가 計上되어 있다고 할때 그들「프로젝트」中, 예를 들면 A 産業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B 産業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推進하는 것이 投資의 產出效果를 가장 크게할 것인가를 檢討하여 投資의 産業別配分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投資配分에 관한 合理的인 作業이 隨伴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各「프로젝트」間的 投資優先順位는 合理的으로 策定되었다 하더라도 所與된 資金과 關聯된 投資의 適正配分을 期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線型計劃 (linear programming) 등의 計量的方法에 의하여 投資의 適正配分을 摸索하고 있는 것이다.

(2) 投資對象業種の 選定에 관한 문제점

第2次計劃은 投資對象業種の 選定에 있어서 收益費用比率(benefit-cost ratio, B/C Ratio)을 主基準으로 삼았으며 그밖에 副基準으로서 鑛工業에 있어서는 國際收支效果 雇傭效果 및 聯關效果를, 그리고 社會間接資本部門에 있어서는 鑛工業 및 農林漁業 즉 物的 生産部門에 대한 支援度를 考慮하였고 農林漁業部門에 있어서는 零細性和 低生産性的 脫皮에 投資의 重點을 두었다고 한다.

收益費用比率는 어떤「프로젝트」의 着工年度부터 耐用期間終了年度까지의 總收益의 現在價値를 期間中 投入된 總費用의 現在價値로 除한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投資一單位當 收益의 比率를 意味한다.

그런데 이때 收益의 概念에는 投資의 直接效果 즉 生産效果만이 包含되고 있으며 間接效果는 技術上 包含하지 못하기 때문에 直接效果보다 間接效果가 큰 「프로젝트」는 投資의 優先順位가 낮아지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 것이다.

또 第2次計劃은 主基準과 副基準을 同時에 考慮하여 投資對象「프로젝트」를 選定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두 基準을 어떻게 適用하여 選定하였는지는 明示되어있지 못하다. 예컨대 製造業에 있어서 收益費用比率, 國際收支效果, 雇傭效果등에 의하여 各「프로젝트」에 의하여 個別的으로 優先順位를 정하였을 때 多幸히도 收益費用比率에 의하여 優先順

위가 높은 「프로젝트」가 國際收支效果, 雇傭效果등을 基準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優先順位
가 높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基準間에 어떻게 順位를 매
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몇가지 解決方法이
提示되어 있다. 그 중 主要한 것으로는 「체네리」(H.B. Chenery)의 方式과 基準別點數制
(scoring system)등이 있다. 「체네리」方式은 다음 式과 같이 投資純收益率과 投資의 國際
收支의 合計値를 投資優先順位の 基準으로 삼자는 것이다.

$$S = \frac{V-C}{K} + \frac{B}{K} \quad (V = \text{總收益}, C = \text{總費用}, K = \text{投資額}, B = \text{國際收支})$$

基準別點數制은 예컨대 열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投資收益, 雇傭, 國際收支등의 基
準에 관한 個別的인 優先順位를 算定한 다음 優先順位가 높은 順序에 따라 一定한 點數를
매겨 그 點數를 「프로젝트」별로 合計하는 方法이다.

그런데 이들 方法은 다 같이 여러 投資基準을 差別 없이 單純綜合하고 있는 不合理性
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第2次計劃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綿密한 研究가
先行되었어야 하였던 것이다.

(3) 投資와 產出效果間의 時差問題

經濟成長과 關聯하여 投資를 다루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의 하나에 資本의 懷妊期間의
相違에서 오는 投資와 產出效果間의 時差問題가 있다. 計劃成功與否는 1次的으로 成長
率의 側面에서 評價된다. 그러므로 計劃以上の 投資活動을 遂行하였고 그에 의하여 여러
가지 施設擴張이 進行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成長의 側面에 反映되지 않는 것이
면 成果의 評價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理由는 計劃의 主眼點이 成長의 高度
化에 두어지는 傾向에 있고 投資成果의 「체크」는 每年마다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投資의 重點이 水利施設의 擴充과 같은 農業生產基盤의 擴大나 社會間接資本등에 두
어질 때는 長期의 資本懷妊期間으로 말미암아 成長率을 鈍化시키는 傾向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2) 部門別 문제점

그러면 第2次計劃의 投資配分計劃이 部門別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內包하고 있으며
그를 解消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
보자.

(1) 農林漁業部門投資上の 문제점과 對策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第2次計劃은 農林漁業部門에 대한 投資를 1,599 億원 計上하
고 있다. 그런데 同規模는 總投資規模의 16.3%로서 鑛工業部門에 대한 投資의 折半程度

의水準에 不過함으로써 農林漁業이 産業上 차지하는 比重과 食糧의 自給化라는 計劃目標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過小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16.3%의 投資水準은 第1次計劃의 同投資水準 10.7%에 比하면 5.6%가 높은 것이나 第1次計劃期間中 農林漁業 部門에서 두드러진 生産基盤의 確立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同部門에서의 經濟成長이 計劃以前과 같이 天候條件에 의하여 크게 支配되었고 보면 投資規模는 훨씬 增大되었어야 하였던 것이다.

第2次計劃에 나타난 食糧需給計劃은 <第3-5表>와 같으며 이를 위하여 耕地擴張 및 水利施設確立, 單位生産性增大 農業試驗 및 指導등의 投資活動을 計劃하고 있다. <第

食糧需給計劃

<第3-5表>

單位：千M/T

	1965	1971		1965	1971
需 要	8,267	10,212	供 給	7,598	10,172
食 糧 用	5,132	6,128	生 産	—	—
官 需 用	190	190	政府備蓄(移越)	130	200
加 工 工 業 用	1,209	1,583	民間保有(//)	794	1,211
飼 料 用	225	265	不 足	— 669	— 40
輸 出 用	5	50			
種 子 用	164	223			
其 他	1,342	1,773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3-5表>에 의하면 1971 年の 食糧需要는 10,212千M/T 이 豫想되는데 대하여 供給計劃量은 10,172 千M/T 으로 대체로(40千M/T 不足) 食糧의 自給自足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食糧의 自給自足計劃이 實現되자면 다음에 드는 몇가지 點이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는 農業의 自然條件에 대한 依存度の 止揚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每年 旱, 水

産業別 成長率 推移 (1960年不變價格)

<第3-6表>

單位：%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第 1 次 産 業	1.8	-6.6	9.5	8.3	-0.9	-0.7	11.3	-9.0	6.2	17.9	-0.6	10.0
第 2 次 産 業	17.5	10.7	15.6	7.8	11.2	8.5	5.3	17.5	16.2	5.7	19.9	16.0
第 3 次 産 業	6.2	4.8	4.4	4.3	7.1	2.7	-0.2	7.5	8.1	4.0	8.9	11.0
G N P	5.9	1.1	8.1	6.5	4.8	2.5	5.0	4.1	9.3	8.9	8.1	11.9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害가 찾아들어 農作物作況의 不振과 農業成長率의 鈍化 및 不安定을 招來하였다. <第 3-6表> 參照). 이러한 現象을 克服하기 위하여 政府는 이른바 全天候農業의 實現을 꾀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灌溉, 貯·排水등의 水利施設을 完備하게 갖추어 水利不安全農土를 거의 모두 安全農土로 改良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低生産性を 克服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耕地面積은 2,312千町步로서 總國土面積(南韓단입) 9,929千町步의 23.3%에 達하고 있으며 農家戶數는 2,540千戶로 1戶當 耕地面積은 9反步를 示顯하고 있어 耕地面積의 狹少 및 耕作規模의 零細性 때문에 苦痛하고 있다. 그러나 耕地面積의 擴張은 莫大한 資本을 所要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는 것이므로 耕地擴張의 推進과 併行하여 農業生産性의 增大에 注力해야 한다. 生産性의 向上은 施肥增大 種子改良등에 의한 土地生産性의 上昇과 農業生産資材의

農林漁業에 대한 部門別 投資計劃

<第 3-7 表>

單位：百萬圓

		1967~71年合計		1967~71年合計
農	業	92,773	其	他
林	業	17,499		18,340
漁	業	31,326	合	計
				159,938

資料：第 2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註：其他는 農林漁業各部門에 걸쳐 配分할 計劃임.

農業部門 投資計劃

<第 3-8 表>

單位：百萬圓

		1967~71年合計		1967~71年合計
水	利	施	設	擴
耕	地	擴	張	整
種	子	更	新	
地	力	增	進	
災	害	對	策	
		26,712	經	濟
		37,774	作	物
		1,691	·	蠶
		4,575	業	產
		2,278	農	業
			試	驗
			·	指
			其	他
			合	計
				6,801
				2,691
				7,278
				716
				92,773

資料：第 2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增強 및 近代化에 의한 勞動生産性의 上昇의 두가지側面에서 講究되어야 한다.

셋째는 農業生産與件의 造成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農業은 小農經濟를 基本的인 特徵으로 하고 있는바 따라서 農地에는 利潤追求라는 企業의 觀念이 消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低穀價政策·美剩餘糧穀의 導入등에 의한 生産費以下의 價格水準과 前近代的인 經營方式등은 農民의 生産意慾을 沮害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投資의 擴大와 併

行하여 適正穀價의 形成, 農家經濟向上策의 講究등에 의하여 農民들로 하여금 生産에 精進할 수 있는 與件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食糧增産의 時急한 方法의 하나인 것이다.⁽¹⁾

위와같이 食糧의 自給自足の 實現은 莫大한 努力과 資金을 必要로 하는바 따라서 第2次計劃의 農林業部門投資는 計劃實績이 거의 至難하리만큼 不足한 規模인 것이다.⁽²⁾

1,599億원의 農林漁業部門의 投資中 312億원이⁽³⁾ 漁業部門에 대한 投資이다. 그 主要內容은 <第3-9表>와 같이 漁業基本施設및 漁撈裝備에 대한 投資 264億원, 水産物處理加工施設에 대한 投資 37億원이다. 다시 말하면 第2次計劃은 漁獲增大를 위하여 期間中 264億원의 投資計劃을 세우고 있는데 同規模 역시 農業投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投資貯

漁業部門 投資計劃

<第3-9表>

單位：百萬元

	1967~71年合計		1967~71年合計
基 本 設 備	4,563	處 理 加 工 施 設	3,712
漁 撈 準 備	21,851	試 驗 指 導	454
增 殖 事 業	746	合 計	31,326

資料：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蓄狀況에 비추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우리는 計劃期間中 漁獲高를 現水準보다 70%以上 增加시키고 漁撈施設을 近代化하여 沿岸漁場에서의 漁獲增加와 近·遠洋漁場에로의 大量進出을 이룩해야 한다. 그런데 沿岸漁場에서의 漁撈는 韓日修交를 契機로 한 日本漁船의 進出로 인하여 施設面에서나 技術面에서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遠洋漁場에로의 大量

(1) 經濟發展의 程度에 따라 產業構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樣相을 하고 있다.

즉 現 先進國의 開發初期와 後進國에 있어서는 第1次→第3次→第2次產業型, 中進國에 있어서는 第2次→第3次→第1次產業型, 先進國에 있어서는 第3次→第2次→第1次產業型의 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2) 「엑슈타인」(O.Eckstein)의 分析에 의하여 보다 자세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單純한 「케이스」를 假定해서 投資가 招來하는 收益이 實際로 計測可能하며 그러한 年年의 收益을 B라고 表示한다. 그것을 產出함에 要하는 資本費用과 運營費用을 包含한 年年의 費用을 C, 施設에 대한 固定投資를 K, 施設의 運營·維持·補修等を 위하여 每年 支出하는 費用을 O, 固定施設의 償却期間을 T, 割引에 使用한 利子率을 i, 라고 各各 定하자, 그리

면 T年間の 總收益의 現在價値는 $\sum_{t=1}^T \frac{B}{(1+i)^t}$ ①이며, 總費用의 現在價値는 $\sum_{t=1}^T \frac{O}{(1+i)^t}$,

+K.....②이다. 따라서 T年間 全體에 對해서의 收益과 費用의 比率은 ①÷② 즉 $\sum_{t=1}^T \frac{B}{(1+i)^t}$

$$\left[\sum_{t=1}^T \frac{O}{(1+i)^t} + K \right]^{-1}$$

이다.

(3) 農林漁業部門에 대한 投資中에는 其他라는 費用에 18,340百萬元이 計上되어 있는데 同其他投資 18,340百萬元은 年次別로 農林漁業에 各各 配定될 豫定으로 있다.

進出은 先進國으로 부터의 近代的漁船의 導入에 의해서 可能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漁獲 增加를 沿岸에서 이룩하던 近·遠洋에서 이룩하던 施設近代화와 技術向上에 實로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것이다.

(2) 鑛工業部門 投資計劃의 문제점과 調整

가. 産業別 投資配分の 補完·調整

5 個年計劃은 産業構造의 近代화와 自立經濟의 確立을 基本目標로 하고 있다. 産業의 近代化政策은 第1次計劃에 이어 第2次計劃에 있어서도 堅持되고 있으며 특히 第2次計劃에 있어서는 該計劃目標의 하나로 工業構造의 高度화를 내세워 이 分野에 倍前의 힘을 傾注할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目標設定에도 불구하고 實際의 産業別 投資計劃을 보면 計劃目標와는 야간의 거리가 있는 곳에서 作成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勞動力 過剩型의 나라에 있어서는 産業別 生産水準은 該部門에 대한 投資規模의 크기에 따라 增加한다. 그러므로 工業構造를 高度화한다는 目標아래 作成되는 投資形式은 自然히 重工業에 投資配分이 置重될 것이다. 그런데 다음 表에서 보느냐와 같이 第2次計劃은 輕工業에 대하여 製造業總投資 規模의 39.2%에 해당하는 111,196 百萬원을 配分하여 輕工業에 投資를 優先한 印象을 주고 있다. 第1次計劃을 보면 製造業에 대한 總投資額 894 億원 중에서 불과 9.4%를 輕工業에 配分하고 重工業에 대하여는 52.9%에 해당하는 473 億원을 配分하고 있는바 이를 第2次5 個年計劃과 比較하면 좋은 對照를 이룬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計劃樹立當局에서는 다음과 같이 解明하고 있다.

즉 第1次計劃에 있어서는 오로지 工業構造를 高度化시키는데 政策을 集中시켰으나 第2次計劃에 있어서는 工業構造의 高度화와 아울러 輸出增大, 輸入代替를 並行的으로 摸索함으로써 그러한 結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外換事情을 好轉시킨다는 問題는 63 年以來 政府가 해마다 격는 重大課題의 하나이다.

63 年以來 經濟政策이 輸出第一主義로 集約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製造業의 業種別 投資計劃을 作成함에 있어서 주된 基準을 外換效果에 둔다면 纖維食料品등에 投資의 重點이 갈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投資配分の 주된 基準을 外貨效果에 두었을 때 그것이 工業의 高度化政策과 多少 抵觸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外換事情은 好轉이 되었지만 그런 然後에 다시 投資의 重點을 重工業部門으로 復歸시킨다면 既擴充된 輕工業施設의 遊休는 일어나지 않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같이 볼때 第2次計劃에 있어서 輕工業의 投資配分이 39.2%라는 것은 아무래도 過分한 느낌이다. 특히 纖維部門에 대한 投資가 67,007 百萬원 (23.6%)으로 製造業의 어느 業種의 投資額보다도 크다는 것은 第2次計劃期間中 建設되는 것이 主로 化學纖維工場들로서 輸入代替效果가 크다고 하더라도 過多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製造業의 業種別 投資配分

<第3-10表>

單位：百萬원

單位：億원

業 種 別	第2次計劃 (1965年價格)	%	業 種 別	第1次計劃 (1961年價格)	%
輕 工 業	111,196	39.2	輕 工 業	84.2	9.4
食 料 品	13,686	4.8	食 料 品	30.4	3.4
纖 維	67,007	23.6	纖 維	50.8	5.7
製 板, 合 板	7,903	2.8	印 刷	3.0	0.3
紙 類, 판 프	11,000	3.9			
窯 業, 土 石	11,600	4.1			
重 工 業	143,601	50.7	重 工 業	473.2	52.9
化 學	46,901	16.5	化 學	198.2	22.2
石 油 製 造	16,300	5.7	「시 멘 트」	43.9	4.9
「시 멘 트」	12,200	4.3	金 屬	73.8	8.2
金 屬	35,400	12.5	機 械	157.4	17.6
機 械	32,800	11.7	既 存 施 設 活 用 }	337.0	37.7
其 他	28,746	10.1	非 計 劃 專 業 其 他 }		
製 造 業	283,543	100.0	製 造 業	894.4	100.0

나. 各「프로젝트」의 年次的調整

第2次計劃은 製造業의 各「프로젝트」를 選定함에 있어서 收益費用比率를 主要 基準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各「프로젝트」의 投資收益을 同一한 價格基準으로 表現할 수 있다면 收益率은 「프로젝트」選定の 第1次的基準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留意해야 할 것은 收益率算定の 基礎가 되는 投資收益은 一般的으로 該「프로젝트」의 生産額만을 包含하기 때문에 金屬 機械部門과 같이 外部經濟의 效果가 더 큰 「프로젝트」는 收益率이 過少評價되는 傾向이 있다는 點이다.

外部經濟效果(投資의 間接效果)를 考慮치 않는다면 輕工業은 重工業에 比하여 높다.

따라서 앞으로 第2次計劃의 年次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以上과 같은 點을 考慮하여 投資의 直接效果外에 間接效果를 測定하는 方法을 講究하여 製造業全體를 單位로 한 「프

로젝트」選定이 可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收益率 基準外에 「프로젝트」의 關聯效果 市場展望등을 考慮하여 年次的調整을 해야 할 것이 要望된다. 第2次計劃에 策定된 投資計劃은 全產業分野에 高루計劃되어 있으나 「프로젝트」間的 聯關關係가 需要展望 그리고 充分한 技術檢討가 이루어졌는지 疑心이 간다.

예를 들면 第2次計劃은 期間中 22,694 百萬원의 資金을 投下하여 綜合製鐵所를 建設할 것을 計劃하고 있다. 綜合製鐵所의 建設은 우리 實情으로 보아 極히 必要한 것임은 말할 것 없으나 計劃은 同製鐵所의 建設案을 計上하고 있을 뿐 그 前·後方的으로 必要한 聯關產業에 대하여 뚜렷한 計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또한 綜合機械工場 設置問題는 現 既存施設(例 韓國機械, 大韓造船公社, 造機部等)이 市場枯渴로 稼動率이 極히 低調한 狀態에 있음을 감안하여 製品市場計劃이 事전에 綿密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第2次5個年計劃에는 反映되어 있지 않으나 政府當局에서 構想하고 있는 것으로 傳聞되고 있는 石油化學「콤비나트·시스템」도 市場條件面에서 慎重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要컨데 工業部門投資計劃은 그 建設과 동시에 長短期에 걸친 그 事業의 韓國經濟에의 吸收消化度가 年次計劃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프로젝트」別 投資優先順位の 決定

第2次計劃에 計上된 各「프로젝트」는 投資의 生産效果 國際收支效果 및 雇傭效果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가장 優先順位가 높은 것만이 選定된 것으로 알고 있다.

換言하면 第2次計劃은 9,800 億원의 投資資金을 마련하고 同 資金을 財源으로 하여 各種「프로젝트」를 選定하였는바 만일 위의 投資資金 捻出에 약간의 蹉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一部를 計劃에서 取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第2次計劃을 檢討해 보면 9,800 億원의 投資規模(投資率 19%)는 과거의 投資實績 또는 우리의 貯蓄餘力에 비추어 약간 過多한 느낌을 준다.

第1次計劃의 成果를 보면 計劃에서는 年平均 國民總生産의 22.9%가 投資되는 것으로 想定하였으나 실제의 投資率은 年平均 14.2%(1962~65年 平均)로 計劃投資率보다 8.7%가 낮았다.

이 14.2%의 投資率을 우리의 投資能力의 正確한 反映이라고 假定한다면 이것이 第2次計劃期間中에는 19%로 과연 上昇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800 億원 投資計劃에는 多少 意慾의 過剩이 엿보이는바 만일 投

資計劃에 蹉跌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9,800 億원의 投資資金調達計劃 아래 選定한 各「프로젝트」中 어느 事業을 拋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때에 各「프로젝트」를 同一한 比重으로 重要視한다면 어느 「프로젝트」를 計劃에서 取消할 것이냐 하는 決定은 多分히 非經濟的인 要因에 의하여 行하여 甚 公算이 크다고 생각된다.

「프로젝트」選定이 非經濟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自然히 經濟的 基準아래서 選定하는 경우보다 投資效率이 低下할 것은 쉽게 豫想할 수 있으며 또 위의 再選定에서 除外되지 않기 위해서 「프로젝트」間에 不必要한 競爭을 誘發하게 되는 것도 거의 明白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計量的方法이라는 어려운 作業을 거쳐 「프로젝트」를 選定하였던 意義가 沮害되므로 앞으로 投資財源調達에 蹉跌이 발생하는 경우 年次別計劃에 對備하여 既 選定된 「프로젝트」에 投資優先順位를 策定해 둬야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製造業에 대한 政府投融資問題

第1次計劃에 있어서는 製造業의 各「프로젝트」別로 政府의 投融資計劃이 明示되어 있었고 또 製造業에 대한 政府의 投融資比重도 製造業 總投資規模의 56.3%라는 高率에 達하였으나 第2次計劃에 있어서는 第1次計劃과 같은 「프로젝트」別 投融資明示가 없을 뿐만 아니라 投融資의 規模도 製造業 總投資額의 4.2%라는 極히 낮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이 일어나게 된 까닭은 政府가 製造業에 대하여는 民間資力에 의한 事業建設을 期待하였다는 것과 부득이 資本支援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政府融資分을 其他經費로 두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民間의 投資餘力이 充分하기만 하다면 政府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나 農業增產등에 投融資하고 製造業은 民間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民間의 投資能力이 2,715 億원이라는 龐大한 投資(製造業의 民間投資分)를 擔當하기는 甚한 느낌이 있으며 만일 이 民間投資計劃에 蹉跌이 발생하였을 때 第2次計劃은 計劃 그 自體가 흔들리지 않을까 憂慮된다. 第1次計劃의 實績을 보면 製造業의 大部分의 事業計劃이 借款이나 政府融資를 바탕으로 推進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年次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이점에 대한 充分한 考慮가 있어야 할 줄 안다.

「프로젝트」別로 政府의 投融資計劃을 밝히게 되면 財力이 不實한 企業體가 政府資金만을 가지고 事業을 일으킨다고 나설 憂慮가 없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同一한 內容의 事業을 둘러싸고 不必要한 競爭을 招來할 것이 豫想되기도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別로 政府融資計劃을 明示치 않은 것은 資金配定에 있어서 政府의 行

動을 자유롭게 하는 利點이 있으나 한편 작작하면 政府融資가 特定「프로젝트」에 偏重될 餘地도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別 投融資計劃은 原計劃에서가 아니더라도 年次計劃에서는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때에 政府投資가 特定「프로젝트」에 偏重됨이 없도록 留意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民間의 自力으로서도 充分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融資하는 일 이 없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가. 既存施設의 活用과 再投資計劃의 補完

第1次計劃은 既存施設의 活用을 위하여 製造業 總投資額의 25%를 配定하고 있으나 第2次計劃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再投資計劃에 관한 明示가 없다.

投資는 工場의 新設 또는 擴充을 위한 新投資도 重要하지만 既存施設의 保全 活用을 위한 再投資도 또한 그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이다.

第2次計劃은 製造業에 대하여 2,835 億원(其他鐵工業包含)의 投資金額을 마련하고 있는바 同投資額이 製造業에 대한 投資의 總額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再投資額도 포함되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835 億원의 投資計劃을 보면 大部分이 新投資에 該當하는 것이고 其他項目으로 845 億원이 計上되어 있다. 이 845 億원의 其他項目이 再投資가 아닌가 하는 推測이 가는데 그 령다고 보면 그 比重은 製造業 總投資 2,835 億원의 29.8%로 第1次計劃의 再投資와 거의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번엔 確定된 第2次計劃은 第1次計劃의 新規投資事業을 既存施設로 지니고 向後 5年 동안에 推進될 것이므로 既存施設投資比率도 擴大 再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點 年次計劃에서 적지 않은 修正이 加해질 것이 豫想되는데 앞으로 年次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新規「프로젝트」에 대한 補完 調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再投資에 대하여도 綿密한 計劃을 세워 新投資와 再投資間에 摩擦이 일어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可及의이면 再投資에 있어서도 「프로젝트」別 投資計劃을 마련하여 計劃의 效率性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事業擔當體의 再調整과 嚴選

第2次 5 個年計劃의 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該「프로젝트」를 擔當할 企業體가 選定되어 있는 部門도 있고 아직 事業擔當體가 未定인 部門도 있다.

既選定된 事業擔當體는 물론 嚴格한 財力調査와 經營能力檢査등을 거쳐서 決定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該「프로젝트」의 擔當業體로서 약간 不適合한 企業體도 없지

않을 것이며 또 該「프로젝트」의 擔當體를 널리 募集하면 보다 適合한 企業體가 나타날 可能性도 없지 않으므로 事業擔當體의 再調整을 行함이 必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再調整을 行할 때에는 該企業體의 財力 및 經營能力들을 考慮한 合理的인 基準을 設定할 것이 要望되며 이 基準에 立脚하여 앞으로 未定된 「프로젝트」의 事業擔當體를 選定해야 할 것이다.

한편 事業擔當體의 再調整 및 選定과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은 第2次計劃의 投資計劃이 너무 計劃初期에 集中되어 있는 傾向이 있으므로 이를 年次的으로 調整해야 할 것이다.

(3) 社會間接資本 投資計劃의 補完

第2次開發計劃의 物的 生産部門의 뒷받침이 될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成長率을 6.6%로 策定하고 計劃期間中 5,191.2 億원의 投資를 計上하고 있다.

그런데 社會間接資本部門에 있어서의 投資가 그 生産效果를 갖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時差가 걸리게 마련이다.

그뿐 아니라 社會間接資本部門은 그것이 非物的生産의 特性으로 인해 主로 物的生産인 他部門들의 成長을 도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 投資의 意義가 있다. 즉 外部經濟에 의한 他部門들의 生産原價를 低下시키고 財貨의 圓滑한 流通을 可能케 하여 國民經濟活動의 全般的인 擴大를 支援하는데 그 役割이 있다.

그런 點으로 보아 社會間接部門의 投資計劃에 있어서는 그것이 第2次計劃期間中の 物的 生産部門의 成長과 關聯될 뿐 아니라 그것이 갖는 外部經濟形成上의 時差의 效果로 말미암아 第2次計劃期間以後의 期間에 있어서의 物的 生産活動과 結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2次計劃에 있어서는 社會間接資本形成의 策定에 있어서 그것이 그와 같은 國民經濟의 長期的인 成長效果와 結付되어 策定된 點이 약간 未及하지 않나 생각된다. 投資資源의 産業間配분에 있어서도 宜當 그와 같은 點이 考慮되어야 했을 것이다.

가. 投資主體의 具體化

第2次計劃에서는 投資主體의 決定에 있어서 主體를 政府와 民間으로 나누고 있다.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에 있어서도 電力開發投資, 海運 및 航空등에 관해 民間部門의 投資參與를 策定하고 있으며 間接資本部門 全部를 보면 民間投資가 44.6%를 차지하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效果는 그것이 갖는 外部經濟의 形成에 그 意義가 있으므로 投資主體가 거두게 되는 投資의 私的 收益性 效果는 物的 生産爲主의 鑛工業 및 農水産業의 경우보다 稀薄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民間投資가 44.6%나 達한다는 것은 民間의 創意的인 活動에 經濟가 依存하게 되는 自由主義經濟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의 立場으로서 매우 妥當한 計劃方向 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計劃에 策定되어 있는 民間投資는 그것이 大部分 國營企業 또는 政府投資機關들에 의한 投資인 것으로 짐작되며 純民間企業에 의한 比重은 極히 적지 않나 생각된다.

나. 投資評價基準의 修正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事業選定에 있어서 收益費用比率法(benefit-cost ratio, B/C Ratio)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同比率의 無差別한 適用에 의한 投資事業選定은 補完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社會間接資本의 生産的 效果는 投資主體에게 주는 私的 生産性뿐만 아니라 國民經濟全體에 주는 外部經濟나 多目的效果가 더 크니 만큼 事業選定에 있어서는 의당 그러한 波及效果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특히 電力開發計劃에 있어서는 火力發展과 水力發展의 選定에 있어서 그와 같은 檢討가 要望되며 그뿐 아니라 앞으로의 燃料(電力「에너지」가 아닌) 資源의 推移와 關聯하여 事業選定이 調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다. 電力「에너지」供給計劃의 檢討

電力「에너지」는 모든工業의 基本的인 動力源이 되는 것이므로 工業의 成長은 電力의 豊富한 供給을 根據로 하여서만 圓滑히 達成될 수 있다.

第2次計劃은 部門別 成長目標에 의하면 製造業中에서도 特히 電力「에너지」의 需要가 相對적으로 다른 어떤 部門에 있어서 보다도 큰 金屬工業, 化學工業의 成長率이 電力部門의 成長率보다 높게 策定되어 있다.

金屬工業과 化學工業은 工業의 中樞的인 部門을 形成하고 있는데 이들 部門의 成長에 電力供給이 隘路로서 登場하는 경우 工業全體 나아가 國民經濟全體의 成長目標의 達成에 蹉跌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구나 第2次計劃期間中 大幅的인 農漁村電化를 計劃하고 있어 電力「에너지」에 대한 需要는 計劃期間中 및 그 후에 있어서 急速히 增加할 것이 豫想된다.

經濟成長의 不均衡理論에 의하면 어떠한 部門에 있어서 生産이 過剩되었을때 그 部門에 대한 다른 모든 部門들로 부터의 需要가 계속적으로 增加할 수 있는 部門이 있다. 그 중의 한 部門으로서 電力部門을 꼽을 수가 있다고 한다. 특히 工業化는 電力「에너지」의 豊富한 供給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電力「에너지」의 供給은 다른 어떤 部門의 成長보

다도 앞질러 增大해야 한다. 따라서 電力部門投資計劃은 餘他 電力需要部門과의 相關下에 再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電力部門의 生産增加가 1970~71年間に 集中的으로 計劃되고 있는데 이것은 全體의 需給計劃, 電力需要産業에 있어서의 建設과 生産計劃 및 投資效果에 있어서의 時差的인 問題등과 關聯하여 時間的配分에 있어서 再調整이 必要함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電力部門의 投資는 1967~68年間に 集中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電力部門投資 그 自體가 規模가 큰 資金을 所要로 하는 것이므로 國民經濟 全體의 可處分資金 全體와의 關聯下에 資金投資가 時間的으로 適正하게 配分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電力部門에 있어서는 그 生産計劃과 投資計劃이 다 같이 時間的配分에 있어서 再調整이 要望된다.

다. 交通部門 投資計劃의 調整

交通部門에 있어서는 計劃期間中 投資의 年次別 配分이 計劃에 明示되어 있지 않다. 國民經濟 全體의 年次別 資金需要計劃, 年次別投資 및 生産計劃은 各部門別의 年次別計劃이 調整되어야만 비로소 合理的인 것이 될 수가 있다. 計劃執行上 投資가 特定期間에 集中되는 것은 特別한 理由가 없는 限 全體의 資金需給計劃에 蹉跌을 가져 올 우려가 있고 또 計劃 達成에 있어서도 困難을 수반하기 쉬우므로 年次別의 適切한 配分이 要望된다.

鐵道, 港灣, 海運등 그 모두가 현재 國民經濟의 隘路部門으로서 登場하고 있다. 그러므로 年次計劃을 세워 計劃의 實踐을 年次別로 管理할 수 있게 해야한다.

自動車 增車計劃은 「택시」 및 「다이크로·버스」 5,200輛 「버스」 9,000輛, 小型自動車 2,400輛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豫想되는 公路上의 旅客運送難을 緩和하기 위하여서는 大型「버스」의 더 意慾的인 增車が 要求된다.

서울와 釜山에 있어서의 交通難은 앞으로의 地下鐵道の 建設을 必然的으로 要請되고 있는데 地下鐵은 그 建設費가 莫大하므로 資源調達上 難點이 크다. 그러나 이들 都市에다 地下鐵을 파는 대신 既存鐵路를 우선 覆蓋하여 一次的인 交通難의 解決策으로 삼고차차 覆蓋道路를 擴張해 가면서 地下鐵에 대신하면 費用을 節約할 수 있을 것이다.

覆蓋道路의 위는 自動車道路로 하고 아래는 鐵道로 하면 鐵道運送量이 增大하고 同時에 道路가 擴張 또는 延長되므로 都市의 交通難은 大幅 緩和될 것이다.

그러므로 大都市의 交通은 主軸手段을 鐵道로 삼기 위한 段階로 既存鐵道の 覆蓋를 위한 投資計劃이 追加되어야 할 것을 強調한다.

道路建設을 보면 有料道路와 有料橋梁을 政府가 建設하게 되어 있으며 全部 地方에 建

設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이들 道路와 橋梁의 使用을 有料로 한 것은 政府가 投資資金의 回收에 의한 再投資를 目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公共施設物에 대한 投資資金의 回收에 있어서는 그 可能性이 都市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都市에 있어서의 交通量은 投資資本의 回收에 의한 再投資를 充分히 可能케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그 限界에 到達되어 있다. 그러므로 有料道路와 有料橋梁의 建設은 서울, 釜山등 大都市에도 실시되는 것이 都市 交通難의 緩和와 投資 回轉資金의 確保上 바람직스럽다.

마. 地域別開發計劃의 樹立과 計劃의 調整

經濟開發計劃의 窮極的인 目標은 國民厚生의 極大化에 있는 것이며 이厚生이 國民經濟全體에 고루 고루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同計劃이 國民經濟를 地域적으로 갈라 놓고 있는 各地方의 開發計劃과 關聯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第2次計劃에 있어서는 地方計劃과의 聯關에 관한 考慮가 빠져있다.

綜合的인 國民經濟開發計劃은 地方計劃을 土臺로 해야만 各地方民의 厚生增大를 위한 計劃으로서의 規範性을 모든 國民으로 부터 認定받게 되리라 본다. 따라서 第2次計劃은 그것이 地方計劃으로 具體化 또는 地方計劃과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第2次計劃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工場建設計劃, 農漁村의 開發計劃 및 社會間接資本部門에 있어서의 投資等은 그것이 모두 地方的인 適性和 隣近經濟에 대한 最大의 發展의 衝擊을 주는 方向에서 計劃되어야 하기 때문에 地方發展計劃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볼 때 1967年 12월에 完成된 韓國經濟開發協會의 「地域產業聯關「모델」에 의한 地域經濟計劃에 관한 研究」는 開發計劃의 樹立에 있어 매우 重要한 作業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年次計劃에서는 이러한 作業結果에 依據하여 均衡있고 合理的인 地域開發의 摸索이 試圖되어야 할 줄 안다.

IV. 對外去來上의 문제

1. 第1次 5五個年計劃과 實績

自立經濟達成을 위한 基盤確立과 民主的 福祉國家의 經濟的 基礎完成을 基本目的으로 한 第1次 5五個年計劃은 慢性的인 國際收支 逆調를 輸出增大를 主軸으로 하여 早速히 改善할 것을 그 附隨目標의 하나로서 標榜하였다.

특히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同計劃上의 特徵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輸出의 急速인 增加와 輸出商品의 構造를 종래의 1次產品 爲主에서 2次產品 爲主로 轉換시킨다.

둘째로 輸入을 消費 내지 原資材輸入에서 輸出産業 및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위한 資本財 내지 原資材 輸入 中心으로 바꾼다.

셋째로 輸出增加에 따라 自力輸入을 增加시키는 동시에 美國援助의 漸減趨勢에 對備하여 經常收支上의 赤字의 相當部分을 外國借款으로 補填한다.

이러한 基本方向은 國際收支의 計劃值가 原計劃, 補完計劃(1963年の) 및 年次別修正計劃등을 거치는 동안 變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繼續 追求되어 왔다.

그런데 計劃期間中 國際收支의 計劃值 및 實績值를 對比하여 보면 <第 4-1表>와 같다. 總括적으로 볼 때 國際收支部門을 受拂兩面에서 計劃額을 초과하는 伸張率을 보이면서 크게 擴大되어 왔다.

우선 商品輸出을 보면 1964年度에 史上 처음으로 1億弗臺를 實現하여 目標年度에는

1次5個年計劃期間中 國際收支推移

<第 4-1表>

單位：百萬弗

	1962		1963		1964		1965		1966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貿易收支	-390.8	-367.0	-404.2	-473.5	-390.9	-285.3	-363.4	-274.9	-354.8	-419.5
輸 出	65.9	54.8	79.7	86.8	96.0	119.1	121.6	175.1	137.5	253.7
輸 入	456.7	421.8	483.9	560.3	486.9	404.4	485.0	450.0	492.3	673.2
貿易外收支	81.0	75.0	89.1	70.7	94.8	64.3	100.3	76.3	108.2	168.9
受 入	109.0	103.0	119.4	108.1	130.2	101.3	141.3	112.0	153.7	210.5
支 拂	28.0	28.0	30.3	37.4	35.4	37.0	41.0	35.7	45.5	41.6
經常收支	-309.8	-292.0	-315.1	-402.8	-296.1	-221.0	-263.1	-198.6	-246.6	-250.6
純 贈 與	243.6	236.5	222.7	259.5	203.9	194.9	193.5	203.3	173.5	218.2
民 間	19.8	36.5	19.8	52.0	19.6	53.9	19.6	68.7	19.6	92.0
政 府	223.8	200.0	202.9	207.5	184.3	141.0	173.9	134.6	153.9	126.2
純借款導入	49.9	4.5	87.4	63.7	108.1	22.3	63.3	41.4	75.3	139.0
民 間	32.1	2.8	48.2	42.1	60.5	13.2	39.1	39.5	26.9	112.1
政 府	17.8	1.7	39.2	21.6	47.6	9.1	24.2	1.9	48.4	26.9
外換保有額(增)	16.1	38.4	3.4	37.2	-18.5	0.7	3.8	-9.4	-4.7	-97.5
其 他	0.2	12.6	1.6	42.4	2.6	3.1	2.5	-36.7	2.5	-9.1

資料：企劃調整室

註：1) 輸出은 f.o.b. 價格, 輸入은 c.i.f. 價格임.

2) 其他에는 誤算 및 漏落分包含.

250 百萬弗을 上廻함으로써 原計劃上의 計劃值 138 百萬弗의 거의 2 倍에 達하였고 더우기 輸出商品의 構造에 있어서도 工產品의 比重이 激增되어 目標年度에는 總輸出額의 63%라는 壓倒的 比重을 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無償援助의 減少등 輸出減少要因에도 불구하고 輸出에 따른 輸出用原資材導入의 激增과 計劃事業推進에 따른 借款導入의 始發등으로 輸入需要가 크게 增大되어 貿易收支의 赤字는 目標年度에 있어서 計劃值 355 百萬弗을 凌駕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收支上의 支拂超過는 貿易外收支의 好轉과 移轉受入 및 外資導入의 增加등으로 補填되었던 것이다.

貿易外收支는 對國聯軍受入을 비롯하여 運輸 保險등에서의 受入增加를 反映하여 計劃額을 초과하는 黑字를 나타내었으며 移轉支出도 美國의 援助減少에도 불구하고 海外送金受取增加로 計劃額을 上廻하였다.

資本去來는 外資導入態勢및 與件의 未備로 目標額에는 未達하였으나 그 規模는 繼續 擴大되었다.

2. 第 2 次 5 個年計劃의 主要內容

1) 總 括

周知하는 바와 같이 第 2 次 5 個年計劃은 第 1 次 5 個年計劃의 經驗을 基盤으로 하여 1980 年代에 이르는 長期計劃의 中間途程으로서 近代化를 指向하는 諸目標와 이를 達成하기 위한 諸戰略을 提示하고 있다. 특히 第 2 次計劃에서는 6 大基本目標의 하나로서 「7 億弗(商品輸出은 550 百萬弗)의 輸出을 達成하고 輸入代替를 促進하여 劃期的인 國際收支 改善의 基盤을 堅固히 한다」고 함으로써 國際收支部門의 政策方向을 밝히고 있다.

우선 第 2 次 5 個年計劃(原計劃)中の 國際收支部門計劃을 總括하여 보면 援助受入의 激減과, 輸出의 增大에 의한 國際收支의 質量的 改善을 前提로 하여 果敢히 國際收支規模를 擴大시킨다는 것으로 集約할 수 있다.(〈第 4-2 表〉 參照)

그러나 經常收支로 보면 計劃期間中 規模의 擴大및 輸出의 急增에도 불구하고 主로 資本財輸入의 增大에 의하여 經常收支赤字는 繼續되게 되어 있다. 즉 〈第 4-2 表〉에 의하면 1971 年の 財貨 및 用役去來의 規模는 1965 年水準의 2 倍 以上으로 膨脹하나 同年의 經常赤字는 243 百萬弗이 되며 이는 移轉受入과 長期資本의 導入으로 充當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目標年度에 가서 財貨 및 用役受取는 商品輸出 550 百萬弗, 貿易外受取 169 百萬弗로 合計 719 百萬弗이 되며, 美國으로 부터의 支援援助가 減少되고 自力에 의한 輸入

第2次5個年計劃期間中の 國際收支

<第4-2表>

單位：百萬弗

	基準年度 1951 ¹⁾		空白年度 1966		1次年度 1967		2次年度 1968		3次年度 1969		4次年度 1970		目標年度 1971	
	受入	支出	受入	支出	受入	支出	受入	支出	受入	支出	受入	支出	受入	支出
A. 財貨 및 用 役	289.8	482.3	394.8	675.7	461.6	767.3	523.9	833.7	586.0	875.6	646.3	918.9	718.7	962.1
商 品(f.o.b)	175.1	415.9	250.0	586.7	300.0	654.9	360.0	705.3	420.0	732.3	480.0	768.1	550.0	803.5
非 貨 幣 用 金	0.5	—	1.0	—	1.0	—	1.1	—	1.2	—	1.3	—	1.4	—
運 輸 및 保 險	4.5	32.4	5.0	41.4	5.5	49.8	6.1	56.4	7.1	57.7	8.4	58.8	9.6	58.3
其 他 運 輸	3.4	10.7	4.0	11.4	6.6	13.2	7.8	14.8	9.0	16.4	10.6	17.9	12.2	19.6
旅 行	7.7	1.7	12.0	4.7	16.8	7.0	21.8	9.8	26.2	12.7	28.8	15.2	31.6	16.7
投 資 收 益	3.7	2.3	4.7	7.9	5.1	17.7	5.4	21.8	6.0	30.1	6.6	31.8	7.5	36.4
政 府	88.1	12.8	88.0	12.6	84.6	13.0	82.2	13.7	79.5	14.3	77.0	14.8	74.2	15.1
對 國 聯 軍	74.0	—	73.0	—	71.2	—	69.2	—	67.2	—	65.2	—	63.2	—
其 他	14.1	12.8	15.0	12.6	13.4	13.0	13.0	13.7	12.3	14.3	11.8	14.8	11.0	15.1
其 他 用 役	6.8	6.5	30.1	11.0	42.0	11.7	39.5	11.9	37.0	12.1	33.6	12.3	32.2	12.5
財貨 및 用 役 純 計	—	192.5	—	280.9	—	305.7	—	309.8	—	289.6	—	272.6	—	243.4
B. 移 轉 支 出	205.8	6.9	199.8	7.8	196.7	7.3	190.7	7.7	182.9	8.3	178.8	8.8	156.6	9.0
民 間	74.0	5.3	67.3	5.7	69.7	6.0	74.8	6.6	79.9	7.3	88.0	8.0	93.0	8.6
中 央 政 府	131.8	1.6	132.5	2.1	127.0	1.3	115.9	1.1	103.0	1.0	90.8	0.8	63.6	0.4
移 轉 支 出 純 計	198.9	—	192.0	—	189.4	—	183.0	—	174.6	—	170.0	—	147.6	—
經 常 去 來 純 計 (A+B)	6.4	—	—	88.9	—	116.3	—	126.8	—	115.0	—	102.6	—	95.8
誤 差 및 漏 落	—	6.0	—	—	—	—	—	—	—	—	—	—	—	—
C. 資 本 및 貨 幣 用 金	-21.8	21.4	-24.0	112.9	-19.6	135.9	-17.9	144.7	-20.2	135.2	-25.4	128.0	-29.3	125.1
長 期 資 本 純 計	—	42.1	—	117.5	—	140.5	—	149.3	—	139.8	—	132.6	—	129.7
長 期 資 本 導 入	—	47.2	—	135.0	—	160.0	—	175.0	—	170.0	—	165.0	—	165.0
元 金 償 還	—	-5.1	—	-17.5	—	-19.5	—	-25.7	—	-30.2	—	-32.4	—	-35.3
保 有 外 換	-9.4	—	-21.5	—	-18.6	—	-16.8	—	-19.0	—	-24.1	—	-27.9	—
其 他	-12.4	-21.5	-2.5	—	-1.0	—	-1.1	—	-1.2	—	-1.3	—	-1.4	—
清 算 計 定	—	0.8	—	-4.6	—	-4.6	—	-4.6	—	-4.6	—	-4.6	—	-4.6

資料：經濟企劃院,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

註：1) 暫定值임.

이 增加함으로써 1971 年의 總商品輸入 803.5 百萬弗中 自力에 의한 輸入이 70%에 達할 것으로 計劃하고 있다. 특히 開發事業의 積極의 推進으로 輸入에 있어서 資本財 및 原資材의 輸入需要가 擴大되도록 計劃되어 있다.

한편 外換保有額은 對外支拂規模(元利金償還等)의 擴大를 감안하고서도 期間中 106.4 百萬弗이 增加하고, 1971 年에는 270 百萬弗臺에 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計劃期間中の 國際收支의 特徵을 列擧하여 보면

첫째 規模의 全般的인 擴大

둘째 輸出의 增加(年平均 16.4%의 增加率)에도 불구하고 主로 資本財 輸入의 增大에

基因한 經常收支의 赤字 存續

세째 援助및 剩餘農產物受入의 減少에 따른 移轉受入規模의 激減및 一部 終熄

네째 繼續的인 長期資本導入(期間中 835 百萬弗)과 그에 따른 元利金償還額(期間中 280.9 百萬弗)의 增加

다섯째 外換保有額의 增加

여섯째 國內貯蓄의 上昇에 따른 海外貯蓄의 總投資所要額에 대한 構成比의 減少 (1965 年の 51.7%에서 1971 년에는 27.7%) 및 經濟의 自立度 提高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國際收支部門을 構成하는 各 項目別 計劃內容을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 財貨 및 用役去來

(1) 商品輸出計劃

「輸出增大에 의한 自立經濟達成」이 同計劃뿐 아니라 앞으로 長期開發計劃을 一貫할 第一義的 戰略임을 同計劃에서 明白히 하고 있다.

計劃期間中 總輸出規模(通關基準, f.o.b. 價格)을 檢討하면 期間 輸出總額은 2,110 百萬弗로서 第 1 次年度인 1967 年の 300 百萬弗에서 目標年度인 1971 년에는 550 百萬弗을 增加하여 年平均 17.1%의 增加率이 計劃되고 있다.

當初 最少自乘法에 의한 2 次式趨勢方程式에 의하여 推定하여 보면 目標年度에 약 10 億

<第4-3表>

兩次計劃期間中の 輸出成長

	輸 出 額(千弗)	增 加 率(%)	平均增加率(%)
1 次 5 個年計劃의 實績			
1 9 6 1	42,901	—	} 43.0
1 9 6 2	56,702	32.2	
1 9 6 3	84,368	48.8	
1 9 6 4	120,851	43.2	
1 9 6 5	180,450	49.3	
1 9 6 6	255,751	41.7	
2 次 5 個年計劃의 目標			
1 9 6 7	350,000(300,000)	36.8(17.3)	} 31.4(17.0)
1 9 6 8	470,000(360,000)	34.3(20.0)	
1 9 6 9	620,000(420,000)	31.9(16.7)	
1 9 7 0	800,000(480,000)	29.0(14.3)	
1 9 7 1	1,000,000(550,000)	25.0(14.6)	

資料 : 商工部

註 : () 內는 原計劃值인.

商品類別輸出實績與原計劃

<第4-4表>

單位：千弗

商品類別	實				績			
	1960		1961		1962		1963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食料品及動物	9,701	29.6	8,948	21.9	21,899	40.0	18,059	20.8
飲料及煙草	451	1.4	184	0.5	141	0.3	250	0.3
非食用原材料	15,816	48.2	20,958	51.3	19,320	35.2	26,187	30.2
礦物性燃料及潤滑油	1,147	3.5	2,209	5.4	2,760	5.0	2,579	3.0
動物性植物油	199	0.6	1.8	0.3	69	0	92	0
化學製品	401	1.2	550	1.4	990	1.8	904	1.0
原料別製品	3,937	12.0	4,004	9.8	6,177	11.3	28,115	32.4
機械類及搬用機器	88	0.3	884	2.2	1,446	2.6	4,067	4.7
雜製品	93	0.3	971	1.9	1,954	3.6	6,401	7.4
未分類	995	3.0	2,232	5.5	57	0.1	146	1.7
合計	32,827	100.0	40,878	100.0	54,813	100.0	86,802	100.0

商品類別	實				績				計				劃			
	1964		1965		1966		1967		1966		1967		1966		1967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食料品及動物	26,350	22.1	28,190	16.1	49,825	19.9	62,530	20.9	49,825	19.9	62,530	20.9	49,825	19.9	62,530	20.9
飲料及煙草	184	0.2	898	0.5	5,530	2.2	7,000	2.3	5,530	2.2	7,000	2.3	5,530	2.2	7,000	2.3
非食用原材料	31,442	26.4	37,033	21.2	44,880	17.9	54,297	18.1	44,880	17.9	54,297	18.1	44,880	17.9	54,297	18.1
礦物性燃料及潤滑油	2,488	2.1	1,899	1.1	3,000	1.2	2,000	0.7	3,000	1.2	2,000	0.7	3,000	1.2	2,000	0.7
動物性植物油	88	0	71	0	10	0	90	0	10	0	90	0	10	0	90	0
化學製品	630	0.5	380	0.2	2,080	0.8	3,520	1.2	2,080	0.8	3,520	1.2	2,080	0.8	3,520	1.2
原料別製品	42,310	35.5	66,414	37.9	96,140	38.5	100,225	33.4	96,140	38.5	100,225	33.4	96,140	38.5	100,225	33.4
機械類及搬用機器	2,204	1.9	5,501	3.2	7,675	3.1	15,070	5.0	7,675	3.1	15,070	5.0	7,675	3.1	15,070	5.0
製品	13,197	11.1	34,487	19.7	40,940	16.4	55,268	18.4	40,940	16.4	55,268	18.4	40,940	16.4	55,268	18.4
未分類	164	0.1	209	0.1	—	—	—	—	—	—	—	—	—	—	—	—
合計	119,058	100.0	75,082	100.0	250,000	100.0	300,000	100.0	250,000	100.0	300,000	100.0	250,000	100.0	300,000	100.0

商品類別	原 計 劃							
	1968		1969		1970		1971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食料品 및 산動物	75,916	21.1	86,455	20.6	99,608	20.7	113,840	20.7
飲料 및 煙草	7,085	2.0	7,160	1.7	7,281	1.5	7,506	1.4
非食用原材料	61,093	16.9	70,268	16.7	79,089	16.5	84,770	15.4
礦物性燃料 및 潤滑油	2,000	0.6	2,000	0.5	2,000	0.4	2,000	0.4
動物性 및 植物性油脂	90	0	90	0	90	0	90	0
化學製品	12,090	3.4	13,680	3.3	12,290	2.6	10,900	1.9
原料別製品	113,326	31.5	128,255	30.5	145,869	30.4	168,593	30.7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	20,960	5.8	27,760	6.6	34,570	7.2	42,015	7.6
雜製品	67,440	18.7	84,332	20.1	99,203	20.7	120,286	21.9
未分類	—	—	—	—	—	—	—	—
合計	360,000	100.0	420,000	100.0	480,000	100.0	550,000	100.0

資料：經濟企劃院

商品類別 輸出計劃

<第 4-5 表>

單位：千弗

	1967	1968	1969	1970	1971
食料品 및 산動物	60,350	85,294	106,227	131,529	157,202
飲料 및 煙草	7,793	10,330	15,700	22,550	33,170
非食用原材料	54,440	63,404	78,129	94,448	108,348
礦物性燃料 및 潤滑油	1,000	1,000	1,000	1,000	1,000
動物性 및 植物性油脂	30	30	30	30	30
化學製品	2,490	14,020	24,240	28,580	37,900
原料別製品	118,440	146,278	201,282	262,441	322,230
機械類	23,200	40,230	56,200	75,698	115,200
雜製品	82,950	109,409	137,192	183,724	224,920
計	350,000	470,000	620,000	800,000	1,000,000

弗의 輸出額이 達成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1964年以來 너무 急激한 輸出增大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急激한 輸出이 持續되리라고 期待하기가 어렵다는 見地에서 上記와 같이 調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6年 및 1967年에 들어서서 輸出增大速度가 繼續 急速하였고 開發計劃遂行을 위한 輸入需要도 增加되자 政府는 다시 지난 1967年 7月の 輸出振興委

擴大會議에서 商工部가 成案한 第2次5個年輸出計劃(修正案)을 通過시킴으로써 計劃期間中の 輸出目標額을 大幅 增額하기에 이르렀다. (<第4-3表> 參照)

이에 의하면 目標年度의 輸出計劃額은 종전의 550百萬弗에서 1,000百萬弗로 거의 2倍나 增額 策定됨으로써 年平均 31.4%의 增加率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를 좀더 詳細히 檢討하기 위하여 1960年以後 1971年까지의 商品類別 輸出實績 및 計劃(原計劃 및 修正計劃)을 <第4-4表> 및 <第4-5表>로서 比較해 보면 1960년에는 非食用原材料(48.2%), 食料品 및 山動物(29.6%)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었으나 1次計劃의 4次年度인 1965년에 와서는 原料別 製品이 顯增을 보여 37.9%로서 首位를 占하였고 이러던 趨勢는 더욱 擴大되어 2次計劃의 目標年度인 1971년에 가면一修正計劃上一原料別 製品이 32.2%, 雜製品이 22.5%로서 食料品 및 山動物 (15.7%), 非食用原材料(10.8%)등 第1次產品을 顯著히 증가하게 되어 있다.

輸出構成面에서 2次產品의 比重이 1次產品의 그것을 上廻하는 趨勢, 즉 韓國輸出構造의 近代化途程은 產業構造別 輸出實績 및 計劃을 나타낸 <第4-6表>으로서 더욱 明確히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1962년에 있어서 鑛產物(28.0%), 工產物(27.0%), 農產物(23.0%),

<第4-6表> 產業構造別 輸出實績 및 計劃構成比

	1次計劃期間中 輸出實績構成比(%)					
	1962	1963	1964	1965	1966	期中平均
農 產 物	23.0	13.3	10.4	8.7	9.5	11.0
水 產 物	22.0	15.5	19.9	13.7	14.7	16.0
鑛 山 物	28.0	19.5	18.1	15.3	13.4	16.6
工 產 品	27.0	51.7	51.6	62.3	62.4	56.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輸出總額(千弗)	56,702	84,368	120,851	180,450	255,751	698,122
	2次計劃期間中 輸出計劃構成比(%)					
	1967	1968	1969	1970	1971	期中平均
農 產 物	6.5	5.8	5.6	5.4	5.4	5.6
水 產 物	13.6	14.9	13.0	11.2	9.7	11.9
鑛 產 物	8.8	6.8	5.4	4.2	3.1	5.0
工 產 品	71.1	72.5	76.0	79.2	81.8	77.5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輸出總額(千弗)	350,000	470,000	620,000	800,000	1,000,000	3,240,000

資料：經濟企劃院

註：輸出總額中の 期中平均은 期中合計額을 意味함.

水産物(22.0%) 順位가 1966 年에 이르러서는 工產品이 62.4%로 首位로 登場하였으며 2 次計劃이 끝나는 1971 年에 가면 81.8%(原計劃上에는 23.6%)까지 增加되도록 하여 輸出 産業의 工業化를 통한 輸出構造의 高度化를 期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1971 年에는 相對 的으로 農, 水, 鑛産物의 比重은 各各 5.4%, 9.7%, 3.1%로 低下하게 될 것이다.

한편 主要單位品目別 輸出計劃을 보면 基準年度(1965 年)의 경우 5 百萬弗以上の 實績을 보인 品目이 合板(18.0 百萬弗), 被服類(11.5 百萬弗), 綿織物(10.5 百萬弗), 亞鉛鍍鐵板(10.4 百萬弗), 生絲(6.8 百萬弗), 重石(6.4 百萬弗), 鮮魚(6.1 百萬弗), 「웨타」類(5.8 百萬弗)의 順位로 8 個品目에 不過하였으나 1971 年(<第 4-7 表> 參照)에 가서는 70 百萬弗 線인 被服類와 「웨타」類의 兩者를 首位로 하여 生絲(59 百萬弗), 合板(58 百萬弗), 人造纖維織(50 百萬弗), 참치(40 百萬弗), 綿織物(35 百萬弗), 葉煙草(33 百萬弗), 假髮(30 百萬弗)등 30 百萬弗 以上の 高額輸出商品만도 10 餘個로 擴大되도록 되어 있다. 特記할 것은 當初計劃에서 소홀시되었던 電子製品과 加工製品이 調整計劃에서 主要輸出商品으로 登場하였 다는 點과 各種 纖維工業製品의 輸出이 急増할 것이라는 點이다.

(2) 商品輸入計劃

同計劃上 輸入은 部門計劃에 의한 輸入規模, 그리고 國際收支表상의 年度別 海外貯蓄

主要品目別輸出目標額

<第 4-7 表>

單位：千弗

	目標年度			目標年度	
	原計劃	調整計劃		原計劃	調整計劃
綿織物	37,000	35,000	重石	7,500	10,000
絹織物	3,000	20,000	生絲	38,000	59,865
人造纖維物	15,000	50,000	合板	40,000	58,000
毛織物	10,000	23,000	鮮魚	20,000	15,000
絞加工製品	—	30,000	참치	28,000	40,000
被服類	44,000	70,000	葉煙草	6,000	33,170
「웨타」類	25,000	70,000	양송이통조림	3,886	20,000
皮革製品	2,150	15,000	板유리	1,500	6,500
合成樹脂製品	6,000	22,000	유리製品	500	1,000
고무靴類	5,700	23,000	타일	4,000	6,500
假髮	10,000	30,000	陶磁器製品	15,000	8,000
「라디오」	8,000	15,000	玩具	10,000	3,700
電子製品및同部分品	—	70,000			
裝飾用電球	12,000	5,000	合計	352,236	739,735

資料：商工部

規模를 감안하여 推定되어 있는데 計劃期間中 總輸入規模(通關基準, c.i.f.價格)는 4,073百
萬弗이며 1965 年의 462 百萬弗에서 目標年度에는 893.5 百萬弗로 거의 倍增하여 年平均
6.7%의 增加率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第 4-2 表〉參照). 이는 期間中 相異한 輸入
代替가 實現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經濟規模의 膨脹 및 投資計劃에 所要되는 資本財輸入需
要가 激增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前述한 第 2 次 5 個年 修正輸出計劃上에는 輸出規模의 增額과 함께 期間中の 輸入
規模는, 原計劃의 早期完遂를 前提로 한 經濟企劃院의 展望值를 導入하여, 크게 擴大策定
하고 있다.(〈第 4-8 表〉下端參照). 그러나 아직修正된 商品輸入의 細部內譯이 確定되지

〈第 4-8 表〉

計劃期間中 輸入需要 및 財源

單位：百萬弗

	1965		1967		1968		1969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1. 性質別輸入需要(c.i.f.)								
原資材	321.4	69.3	418.0	57.7	417.8	53.3	434.0	53.2
資本材	71.2	15.4	228.4	31.5	283.8	36.2	294.0	36.1
消費材	69.4	15.3	78.5	10.8	82.7	10.5	87.3	10.7
計	462.0	100.0	724.9	100.0	784.3	100.0	815.3	100.0
2. 財源別輸入計劃(c.i.f.)								
政府保有外換	252.6	54.7	399.9	55.2	454.3	57.9	503.0	61.7
長期資本導入	37.9	8.2	160.0	22.1	175.0	22.3	170.0	20.8
援助 및 其他	171.5 (123.4)	37.1 (26.7)	165.0 (102.9)	22.7 (14.2)	155.0 (91.5)	19.8 (11.6)	142.3 (77.3)	17.5 (9.5)
3. 修正된 商品輸入計劃 (f.o.b.)	—		821.7		1,094.0		1,156.0	
	1970		1971		期間合計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1. 性質別輸入需要(c.i.f.)								
原資材	444.5	52.0	461.1	51.6	2,175.4	53.4		
資本材	318.5	37.2	355.1	37.5	1,459.8	35.8		
消費材	92.1	10.8	97.3	10.9	437.9	10.8		
計	855.1	100.0	893.5	100.0	4,073.1	100.0		
2. 財源別輸入計劃(c.i.f.)								
政府保有外換	556.1	65.0	620.9	69.5	2,534.2	62.2		
長期資本導入	165.0	19.3	165.0	18.4	835.0	20.5		
援助 및 其他	134.0 (64.5)	15.7 (7.5)	107.6 (36.7)	12.1 (4.1)	703.9 (372.9)	17.3 (9.2)		
3. 修正된 商品輸入計劃 (c.i.f.)	1,254.0		1,371.0		5,696.7			

資料：經濟企劃院, 商工部

註：()內는 援助에 의한 輸入

않았고 또한 이러한 商品輸出入의 再策定에 따른 國際收支部門의 全面的인 再調整이 實現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原計劃上의 數値로서 그 構成內容을 보기로 한다.

이제 輸入需要를 性質別로 區分(第 4-8表)하여 보면 우선 原資材輸入의 比重은 肥料 및 石油化學工業의 建設이 主導할 輸入代替效果에 의하여 1965 年에 69.3%에서 目標年度에는 51.6%로 漸減하게 될 것이나 資本財輸入의 比重은 投資需要의 增大와 基礎產業擴大에 따라 基準年度의 15.4%에서 目標年度에는 37.5%로 漸增할 것이다. 한편 輸入計劃을 財源別(第 4-8表)로 區分하여 보면 政府保有弗(KFX)에 의한 自力輸入은 期間中 62.2%, 長期資本導入이 20.5%, 援助는 9.2%로 1次5個年計劃에서 援助에 의한 調達이 34.0% 였던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最終年度인 1965 年과 目標年度인 1971 年을 比較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自力 및 長期資本財導入에 의한 輸入의 增大는 輸出 및 外資導入의 增大를 前提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3) 貿易外收支

貿易外收支를 보면 運輸, 保險, 投資收支面에서는 繼續 支拂超過를 나타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對國聯軍收入, 對越經協收入, 觀光收入등의 增加로 全的으로는 繼續 受取超過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收支幅은 初年度의 49.2 百萬弗에서 最終年度에는 10.1 百萬弗로 漸減할 것이다.(〈第 4-2 表〉 參照)

3) 移轉支出

우선 移轉支出의 民間部門을 보면 單純送金, 無換去來 및 PL 480 第 2,3 款에 의한 救護등을 綜合推定한 것으로서 過去의 趨勢에 따라 이는 繼續 受入超過가 될 것으로 計劃되었다. 그리고 中央政府部門에서는 1971 年에 가서 支援援助가 終結되고 PL 480 號導入은 漸減되며 對日請求權 無償資金은 韓日協定에 따라 年間 30 百萬弗씩 導入될 것으로 計劃되고 있다.

이리하여 移轉收入純計는 1965 年의 198.9 百萬弗에서 1971 年에는 147.6 百萬弗로 漸減하게 될 것이며 특히 注目할 것은 計劃期間中 中央政府의 移轉受入이 漸減됨에 비추어 民間部門의 同受入이 漸增하여 目標年度에 가서는 後者が 前者를 上廻하게 됨으로써 移轉支出部門보다 健全한 構成狀態를 보일 것이라는 點이다.

4) 資本去來

(1) 長期資本導入計劃

原計劃上의 資本去來를 살펴보면 <第 4-9 表> 및 <第 4-10 表>와 같다. 우선 物的到着基準에 의한 長期資本導入內容<第 4-9 表>을 보면 確實事業中 未到着分 382.2 百萬弗의 物資가 導入될 것이며 그중 AID 借款은 1971 年에 가서 일단 終熄되며 對日長期低利借款은 協定에 따라 年間 20 百萬弗씩 導入할 것으로 均一하게 計上되어 있다. 그리고 餘他 確實事業中 독일 및 其他 借款에 의한 物資導入뿐 아니라 合作投資도 1970 年以後 일단 斷絶

長期資本導入에 의한 物資到着額推定

<第 4-9 表>

單位：千弗

	1966年	1967年	1968年	1969年	1970年	1971年	期間合計
1. 確定事業	126,877	131,158	100,789	74,123	45,324	30,789	382,183
公共借款	65,443	67,000	57,000	43,123	25,324	20,000	212,447
A I D 借款	38,736	35,000	34,000	21,000	5,324	—	95,324
日本借款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獨逸 및 其他借款	6,707	12,000	3,000	2,123	—	—	17,123
商業借款	50,684	50,000	40,000	30,000	20,000	10,789	150,789
合作投資	10,750	14,158	3,789	1,000	—	—	18,947
2. 新規推進事業	8,500	28,842	74,211	95,877	119,676	134,211	452,817
公共借款	8,500	14,629	41,971	49,454	60,633	71,000	237,687
商業借款	—	9,213	16,029	27,423	39,043	43,211	134,919
合作投資	—	5,000	16,211	19,000	20,000	20,000	80,211
合 計	135,377	160,000	175,000	170,000	165,000	165,000	835,000

資料：經濟企劃院

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그러나 新規投資導入推進事業이 實現된다면 實質적으로 終熄되지 않을 것인바 計劃期間中 確實事業 및 推進事業을 網羅하여 835 百萬弗分의 物資(長期資本에 의한)가 導入完了될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그러나 經濟企劃院은 高度成長政策의 結果로 顯著히 增加되고 있는 投資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外資導入을 繼續擴大, 今後 4 年間(1968 年~1971 年)에 1,279 百萬弗, 2 次 5 個年計劃全期間을 通해서는 總 1,570 百萬弗의 外資를 國內에 到着시킬 計劃임을 지난 1 月初에 發表함으로써 原計劃을 大幅修正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이 到着計劃額은 1967 年の GNP 成長率 8.4%(暫定推計), 1968 年の 修正豫測成長率 12.4%를 基準으로 하여 그 規模를 再調整한 것인데 이는 原計劃上의 835 百萬弗보다 8.2%, 또한 短縮執行을 前提로 짜여진 1,190 百萬弗(1968 年度總資源豫算에 反映)에 비해서도 27.2%가 各各 擴大된 것이며 또한 1 次計劃期間中 總外資到着額 350 百萬弗의 41 倍에 該當하는 것이다.

調整된 計劃額에 의한 今後의 年次別到着規模는 平均 320 百萬弗에 達해야 하며 이러한 趨勢로 가면 外資導入에 관한 限 3 年未滿에 原計劃上의 目標額이 全額 導入完了되는 것이다.

그런데 調整된 1,520 百萬弗의 內容을 보면 確定額 582 百萬弗, 推進中인 事業 938 百萬弗로서 이미 確定額中 241 百萬弗이 1967 年中에 導入完了되었다.

남은 計劃期間中 到着될 外資의 內容은 ① AID 借款 22.4 百萬弗 ② 美輸出入銀行借款 43 百萬弗 ③ 日本財源借款 123 百萬弗 ④ 日本商業借款 287 百萬弗 ⑤ 對日協定借款 90 百萬弗

元利金償還計劃

<第 4-10 表>

單位：千弗

	1966年		1967年		1968年		1969年	
	元	利	元	利	元	利	元	利
1. 確定事業	17,500	7,900	15,845	16,732	20,436	15,835	22,987	21,762
公共借款	265	1,594	530	2,452	710	4,001	843	4,906
A I D 借款	—	525	—	783	—	1,282	—	1,514
日本借款	—	350	—	700	—	1,400	—	2,100
獨逸及其他借款	265	719	530	969	710	1,319	843	1,292
商業借款	17,235	4,306	15,315	11,280	19,726	8,455	22,144	13,377
合作投資(果實送金)	—	2,000	—	3,000	—	3,379	—	3,479
2. 新規推進黨業	—	—	3,655	941	5,264	5,965	7,213	8,338
公共借款	—	—	—	85	—	327	—	1,216
商業借款	—	—	3,655	856	5,264	5,017	7,213	5,601
合作投資(果實送金)	—	—	—	—	—	621	—	1,521
合 計	17,500	7,900	19,500	17,673	25,700	21,800	30,200	30,100

	1970年		1971年		期間合計 1967~1971	
	元	利	元	利	元	利
1. 確定事業	26,454	18,489	26,805	17,742	112,527	90,560
公共借款	843	5,694	1,160	6,363	4,086	23,416
A I D 借款	—	1,632	—	1,632	—	6,843
日本借款	—	2,800	—	3,500	—	10,500
獨逸及其他借款	843	1,262	1,160	1,231	4,086	6,073
商業借款	25,611	9,316	25,645	7,900	108,441	50,328
合作投資(果實送金)	—	3,479	—	3,479	—	16,816
2. 新規推進黨業	5,946	13,311	8,495	18,658	30,573	47,213
公共借款	—	2,255	—	3,518	—	7,401
商業借款	5,946	8,535	8,495	11,619	30,573	31,628
合作投資(果實送金)	—	2,521	—	3,521	—	8,184
合 計	32,400	31,800	35,300	36,400	143,100	137,773

資料：經濟企劃院

萬弗 ⑥ 西獨 53 百萬弗 ⑦ 國際金融基金 21 百萬弗 ⑧ IECOK 및 其他 365 百萬弗 ⑨ 其他(美國) 73 百萬弗 등으로 되어 있다.

(2) 元利金償還計劃

아직 元利金償還에 대한 修正計劃이 發表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原計劃上的 數值를 檢討하여 보면 資本導入이 本格化함에 따라 元利金償還額도 急激히 增加될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第 4—10 表>에 의하면 特히 利子先拂이 增加하여 1971 年에 가던 元金償還이 35.3 百萬弗인데 比하여 利子支拂은 36.4 百萬弗로 利子支拂額이 元金償還額을 上廻하게 되며 計劃期間中 元利金償還總額은 280.8 百萬弗에 達하게 되어 있다.

確定事業의 元利金償還計劃에 있어서 AID 借款은 一般的으로 10 年의 据置期間이 있으므로 計劃期間中 元金償還이 없을 뿐 아니라 年 1%에 가까운 低率의 利子支拂만을 보일 것이며, 對日借款은 7 年 据置期間이 있어 年 3.5%의 利子支拂만을 하게 될 것이다. 合作投資에 있어서의 果實送金은 年投資總額의 10%線으로 推定하고 있다. 新規推進事業의 元利金償還도 이에 準하여 期間中 元金 30.6 百萬弗, 利子 47.2 百萬弗로 策定되어 있다.

5) 海外貯蓄

海外貯蓄은 經濟成長率을 左右하는 總投資中에서 國內貯蓄(民間貯蓄과 政府貯蓄)에 의한 調達分을 達成한 나머지 즉 投資所要額의 海外로 부터의 調達額을 意味한다.

國際收支와의 關聯下에 이를 說明하면 國際收支總括表中 財貨및 用役收支의 純計(支拂超過額)에 該當하며 換言하면 이는 移轉支出純計와 資本去來純計의 合과 같게 된다.

海外財源의 調達

<第 4—11 表>

單位：百萬弗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期間合計 (65~71)
海 外 貯 蓄(純)	192.5	280.9	305.7	309.8	289.6	272.6	243.4	1,421.1
受 入 內 譯(粗海外貯蓄)	257.3	337.9	358.1	366.4	352.3	342.3	319.4	1,738.5
民間贈與및其他(純計)	68.7	61.6	63.7	68.2	72.6	80.0	84.4	368.9
支 援 援 助	63.9	53.5	55.0	45.0	35.0	25.0	—	160.0
剩 餘 農 產 物	72.5	51.8	43.4	42.2	38.7	36.3	34.0	194.6
技 術 援 助	5.0	6.0	6.0	6.0	6.0	6.0	6.0	30.0
請 求 權 資 金(無償)	—	30.0	30.0	30.0	30.0	30.0	3.0	150.0
長 期 資 本 導 入	47.2	135.0	160.0	175.0	170.0	165.0	165.0	835.0
控 除 類 目	64.8	57.0	52.4	56.6	62.7	69.7	67.0	317.4
保 有 外 換 의 增 加	9.4	21.5	18.6	16.8	19.0	24.1	27.9	106.4
元 金 償 還	5.1	17.5	19.5	25.7	30.2	32.4	35.3	143.1
剩餘農產物(20%)및其他	50.3	18.0	14.3	14.1	13.5	13.2	12.8	67.9

資料：經濟企劃院, 『第 2 次 5 個年計劃資料』

〈第 4—11表〉에서 原計劃上의 海外財源(海外貯蓄)의 調達狀況을 그 構成內譯에 따라 別途로 檢討하여 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過去 우리나라의 海外財源의 主宗을 이루어 온 美國의 支援援助는 1970年의 25百萬弗을 끝으로 終熄되며 剩餘農產物導入은 食糧의 自給에 따라 原棉을 除外하고는 停止되는 것으로 計劃하고 있다. 長期資本導入 및 請求權資金의 導入이 原計劃上 累計 835百萬弗, 150百萬弗에 各各 達하며, 反面 海外貯蓄의 減少要因인 元金償還額 및 外換保有額 增加가 各各 143百萬弗, 106百萬弗에 達할 것이라는 點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리하여 第 2次計劃原計劃値의 總量計劃에서는 計劃期間中 總投資所要額 9,800億圓中 國內貯蓄에 의한 61.5%에 該當하는 6,029億을, 그리고 나머지 38.5%인 3,772億圓(1,421百萬弗)은 海外貯蓄으로 充當하도록 策定되어 있는 것이다.

3. 對外去來上의 문제점

1) 輸出入計劃에 있어서의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次 5個年計劃期間中 當初의 計劃値와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輸出은 急激히 增加하여 最終年度에는 原計劃의 118百萬弗에 比하여 그 2倍以上에 達하였을 뿐 아니라 그 品目構成에 있어서도 2次產品爲主의 近代의 構造로 移行하여 왔다.

輸出實績의 增大와 더불어 海外市場도 漸次 擴大되고 多樣化되어 1962年만 하여도 輸出對象國家가 30餘國에 지나지 아니 하였으나 1965年度에는 63個國으로 增加하였으며 1966년에는 다시 「라오스」, 「우루과이」, 「카나다」등 12個國의 新市場이 開拓되었다. 이러한 結果値를 根據로 하여 政府는 2次 5個年輸出計劃을 大幅 增額하는 方向으로 修正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修正된 計劃에 있어서의 GNP에 대한 輸出入比率(GNP의 輸出入依存度) 〈第 4—12表〉을 보면 國民總生産에 대한 輸出構成比는 1966年의 7.2%(實績)에서 1971년에는 17.9%로 上昇하여 年平均 13.5%의 輸出依存度를 나타내며 이는 輸入依存도가 同期間中 20.1%(實績)에서 24.6%로 緩慢히 上昇, 年平均 24.2%로 되는 것과는 對照的이 된다. 特히 이와 같은 輸出依存度の 增加는 2次產品輸出額의 持續的인 急增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工產品 輸出增大를 통한 貿易構造의 質的 改善은 妥當한 目標이나 工產品自體의 輸出伸張에도 하나의 構造的 問題가 擡頭되고 있음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먼저 2次 5個年計劃에 있어서 原計劃 및 修正計劃을 莫論하고 主要輸出品目은 예컨대 綉, 絹 人絹, 毛, 合纖, 經編 등의 織物類, 그밖의 被服類 鞋타類 衣帶, 生絲 등 纖維原列

兩次計劃期間中 GNP 에 對한 輸出入比率

<第 4-12 表>

(1965 年價格)

	1962	1963	1964	1965	1966
G N P (10億원)	338.60	471.53	662.72	768.64	966.69
G N P(百萬弗)(A)	2,343.2	2,554.3	2,787.2	9,074.5	3,563.1
輸 出 額 (B)	56	84	120	180	255
輸 入 額 (C)	421.7	560.2	404.3	463.4	716.4
B/A (%)	2.4	3.3	4.3	5.8	7.2
C/A (%)	18.0	21.9	14.5	15.1	20.1
2次產品 G N P (D)	503.5	532.9	596.8	757.9	917.9
2次產品輸出額 (E)	31.2	60.0	84.2	140.0	193.8
E/D (%)	6.2	11.3	14.1	18.5	21.2

	1967	1968	1969	1970	1971
G N P (10億원)	1,009.77	1,110.75	1,221.82	1,344.01	1,478.41
G N P(百萬弗)(A)	3,804.7	4,185.1	4,603.6	5,064.1	5,570.5
出 額 (B)	350	470	620	800	1,000
入 額 (C)	821.7	1,094	1,156	1,254	1,371
B/A (%)	9.2	11.2	13.5	15.8	17.9
C/A (%)	21.6	26.1	24.9	24.8	24.6
2次產品 G N P (D)	811.0	945.1	1,155.5	1,246.1	1,446.2
2次產品輸出額 (E)	279.8	381.3	502.4	659.5	838.0
E/P (%)	34.5	40.3	43.5	52.9	57.9

資料：商 工 部

註：1) 1967 年度以後의 GNP 및 輸入額은 第 2 次計劃의 早期完遂를 前提로한 企劃院의 展望值에 의함.

2) 2 次產品은 鑛工業產品을 뜻함.

工業製品이 大宗을 이루면서 主로 消費財 내지 輕工業에 偏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各機關에서 直·間接으로 選定된 輸出産業도 거의 大同小異한 輕工業品으로 構成되어 있다. 즉 商工部 選定의 輸出特化産業 및 輸出戰略産業은 물론이거니와 韓銀刊「輸出戰略商品에 대한 調查報告」, 韓國生産性本部刊「輸出特化産業의 實態와 育成計劃에 關한 調查報告」, 中小企業中央會刊「中小企業白書」등에서 選定된 輸出特化産業등도 그러하다. 이에 따라 期間中 特定消費財工業에 政府의 主要輸出支援施策이 集中될 것인바 이는 短期的인 輸出實績提高에는 有効한 戰略이 될 수 있을지라도 長期的 動態的 國際分業原理에 立脚하여 볼 때 또는 工業構造의 近代의 成長을 이룩한다는 基本計劃方向에 立脚하여 볼 때 看過할 수 없는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憂慮는 이미 論議의 段階로 具體化되고 있다. 지난해(1967 年)의 輸出實績이 微少한 差異로 나마 年次計劃額 360 百萬弗에 未達하였다는 것과 이와 더불어 現存 輸出產

業의 限界點, 예컨대 適正規模의 量產體制未備, 經營·技術面의 [不合理, 國際競爭力 弱
化, 業種選定の 再檢討등의 一聯의 문제점을 惹起하고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輸出目標額이 原計劃上 55 百萬弗에서 修正計劃에서는 10 億弗로 大幅 增額하
고 있으면서도 既存特定產業(主로 消費財工業을 비롯한 低級品 爲主)에의 姑息의인 偏倚
的 補助단을 일삼게 된다면 開發되어야 할 輸出產業(따라서 資本財工業 내지 重化學工業)
및 基幹產業의 萎縮은 물론, 輸出目標額 自體의 量的 達成도 극히 困難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輸出增加率, 外貨稼得率, 生産增加率, 雇傭係數, 總輸出實績에 대한 寄
與率등을 감안, 國際收支效果와 單位當限界所得效果가 相對的으로 큰 現段階에서의 輸出
特化產業을 育成하는 短期的 觀點을 살리는 한편 工業構造的 觀點이나 動態的 國際分業原
理에 의해 提示되는 潜在的 輸出特化產業을 啓發하다 長期의 一貫的 施策을 樹立할 必要
가 漸高되고 있다.

이와 結付하여 擡頭된 문제점의 하나로서 輸出 特히 2次產品 輸出이 所要되는 原資材
의 甚한 對外依存性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2次產品 輸出의 大宗을 占하였던 合板, 亞鉛
鍍鐵板, 衣類, 綿織物, 毛織物, 各種 고무製品등은 그 所要原料를 거의 大部分 外國으로
부터 輸入하여 왔다.

따라서 工產品 輸出增加에 따라 輸出用 原資材의 導入등 輸入需要가 增加하여 國際上
의 貿易赤字의 幅은 尙存할 뿐 아니라 이는 一面으로 外貨稼得率의 提高에 隘路가 되어
왔다(第 4-13 表). 또한 海外原料에 依存하는 加工貿易이 輸出商品의 原料品原價構成을
높이게 하고 結果的으로 輸出利潤率 내지는 交易條件에 있어서의 不利를 가져왔다는 것
은 否認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輸出의 單純한 計數的 增加에 注力하기 보다 輸入代替產業의 育成 및 輸

外貨稼得推移

<第 4-13 表>

單位：千弗

	總 輸 出	純外貨稼得額	%		總 輸 出	純外貨稼得額	%
1960	32,385	28,965	89.4	1966	248,360	174,228	70.1
1961	42,901	37,804	88.1	1968	470,000	307,028	65.3
1962	56,702	46,599	82.2	1969	620,000	424,227	68.4
1963	85,337	55,537	65.1	1970	800,000	579,896	72.5
1964	115,147	79,048	68.6	1971	1,000,000	780,385	78.0
1965	172,257	118,378	68.7				

資料：韓國銀行 및 商工部

註：1968 年以後는 計劃值임.

出部門의 加工度 向上이라는 方向에 좀 더 置重해야 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次產品輸出原資材의 輸入中 그 一部를 國內에서 流用함으로써 얻게 되는 利潤이 그 동안의 輸出 特히 1965年 以後의 2次產品輸出增加의 重要한 基盤이 되었다는 것은 公知된 事實이므로 이 點도 이에 追加해서 指摘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輸出의 增加는 輸入과 密接한 關聯을 맺음으로써만 可能했었다. 輸出增加의 基盤이 輸出産業自體의 生産性的 向上이나 經營管理의 合理化등을 통한 正常的 輸出利潤增大에 主因이 있었다기 보다는 비록 輸出行爲 그 自體에서는 利潤이 僅少하거나 혹은 損失을 볼지라도 이 輸出行爲를 手段으로 하여 輸入行爲에서 보게 될 相當한 利得을 保障받을 수 있다는 點이 輸出增加의 重要한 「인센티브」(incentive)로 되었던 것이다.

또한 現存 重點輸出品目인 輕工業品의 輸出에 있어서도 貿易施策(外換, 金融, 稅制 등)의 支援이 아니라 對象産業의 根本的인 育成強化를 中心으로 하는 直接的인 産業政策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最近에 惹起된 輕工業輸出成長의 鈍化는 과거의 貿易政策을 根幹으로 하는 輸出振興施策이 一面에서 限界點에 到達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輕工業 그 自體의 輸出産業으로서의 基盤이 脆弱하다는 事實에 緣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輕工業爲主의 輸出對象部門選定이 低勞賃을 背景으로 하는 國際競爭力에 있어서의 強點을 主眼으로 하는 것임은 周知하였거니와 이러한 觀點은 生産施設의 近代化를 비롯한 經營의 合理化와 産業基盤으로서의 外部經濟의 擴充이 隨伴되는 경우에 限하여 正當한 것이다. 이러한 與件을 度外視한 低勞賃의 背景은 그 自體가 競爭力強化에 큰 意義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低勞賃이라고 하는 事實이 결코 우리의 終局的인 目標나 혹은 繼續的으로 維持할 與件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輸出産業의 育成을 위한 基本的이고 立體的인 施策은 實로 焦眉의 急務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輸出의 絶對額이 增加함에 따라 同增加率의 遞增의 增加가 困難하게 된다는 點, 그리고 對外的으로도 豫測키 어려운 諸 變動要因이 隨時로 發生하는 世界市場에로의 長期的인 進出可能性을 打診해야 한다는 點 등에서 볼 때 과거의 趨勢值의 單純한 연장을 根據로 한 급속한 輸出計劃(年平均 31.4%)의 策定은 理論的 貧弱性을 스스로 露呈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를 敷衍하면 韓國의 貿易構造는 短期的으로는 國內의 産業構造, 生産力, 輸出入關係程度, 各種의 交易振興策, 低生産費를 可能케 하는 賃金水準, 資源不足 등 國內的인 諸條件의 影響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輸出振興은 어느정도 까지는 國內的인 政策手段의 操作에 의하여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에는 貿易構造는 世

界貿易의 長期的인 趨勢와 그에 關聯한 開發途上 諸國 一般이 與件으로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諸般條件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GATT, UNCTAD 및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妥結 등 貿易自由化의 國際潮流에도 불구하고 一面에 있어서의 先進諸國의 保護主義의 擡頭가 後進諸國의 輸出貿易擴大에 相當한 制約條件이 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 되고 있다. 歐美諸國의 農產物價格安定政策, 剩餘農產物輸出의 強行, 美國 AID의 美商品購買政策(Buy American Policy) 등 開發諸國의 값싼 勞動賃金에 의하여 生産된 綿紡製品에 대한 數量制限, 關稅障壁, 國內을 위시하여 低斜陽産業의 構造的調整의 拒否 및 各種補助手段의 提案 등은 이의 좋은 實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貿易이 成長의 動因(engine of growth)이 되려면 이들 制限措置의 動向을 考慮에 넣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貿易構造의 改編이 現實的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以上과 같은 對外的 與件을 充分히 감안하여 輸出戰略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輸入規模面을 考察하여 볼 때 計劃期間中 輸出增加에 따르는 輸出用原材의 輸入增加와 貿易自由化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輸出增加率에 比하여 緩慢한 增加率을 示顯할 것으로 計劃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經濟開發計劃遂行過程에서는 開發輸入의 增大로 輸入增加率이 높으나 期間中 輸入增加가 相對的으로 낮은 것은 國際收支改善을 위하여 原資材와 消費財部門에 있어서의 輸入代替를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計劃된 輸入代替가 圓滑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KFX 輸入의 增加가 不可避하게 나타남으로써 國際收支面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輸入規模가 어느정도 適正하다고 가정하더라도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위한 政府當局의 積極的 支援과 民間企業體의 創意的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2) 貿易外收支에 있어서의 문제점

一般貿易外的 運輸 및 保險, 觀光, 投資, 收益, 軍納, 其他用役 등의 諸項目中 規模面에 서나 政策面에서 重要的 것은 運輸 및 保險과 觀光, 軍納 등이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特히 運送문제는 韓國輸出持續體制의 確立을 위한 看過할 수 없는 要因이 된다 할 것이다.

計劃期間中 擴大하는 輸出入物資의 輸送을 위하여는 相當量의 輸出增加量이 必要할 것이며 이 必要增加分을 모두 外國船에 依存한다고 할 때 運賃部門의 外換收支는 惡化되어 商品輸出의 增加에 의한 國際收支의 改善을 크게 沮害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海運部門의 國際收支의 惡化를 막는 동시에 外貨負擔輕減을 위하여 韓國海運業의 擴張은 至극히 重要的 문제라 하겠다.

外國貿易面에서 實質的인 島嶼國家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 韓國으로서 輸出振興과 工業

하를 위하여는 海運力의 增強이 必須의 前提條件이 된다.

其他 運輸를 包含한 運輸및 保險項目에 있어서의 赤字는 原計劃上 1965 年の 35.2 百萬弗의 水準에서 1971 年에 이르러서는 56.2 百萬弗로서 20 百萬弗의 增加가 있을 것으로 計劃되고 있어, 運輸 및 保險에 관한 限 國際收支의 改善이 反映되고 있지 않다. 물론 外航 海運業이 활발치 못한 現實情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自國船 不足으로 말미암아 韓國船에 의한 貨物輸送이 과거 數年間의 總貨物輸送中에서 25%線 정도로서 그것도 莫大한 外貨獲得의 機會를 놓치고 있는 點등을 감안할 때 海運業育成을 위하여 좀더 果敢한 施策이 要望되고 있다. 그러므로 100 餘隻에도 未達하는 現保有 老朽外航船의 補修 및 改替와 더불어 海運企業의 經營基盤의 強化를 支援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出入國 旅客 및 輸出入貿易上의 見本商品去來의 增大와 더불어 旅客關係 및 貿易收支改善을 위하여는 新機種導入과 國際空港의 改修, 整備, 擴充등을 통한 海空面의 支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資本去來에 있어서의 문제점

(1) 總括——外資導入規模의 문제

前述한 바와 같이 政府는 原計劃上의 835 百萬弗의 外資導入(累計)을 擴大하여 全期間을 通하여 總 1,520 百萬弗의 外資를 國內에 到着시킬 새로운 計劃을 樹立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外資導入擴大政策을 뒷받침하는 論據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1 次計劃實現以後 지난 6 年동안에 高度成長政策이 成功的으로 追求되었으며 이의 持續的 擴大를 위하여는 外資導入의 擴大가 불가피할 것이며 그리고 高度成長을 위하여는 投資의 增大가 必須條件인바, 國內貯蓄도 문제되지만 海外貯蓄도 이에 못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67 年の 경우를 보면 國內貯蓄率이 計劃值인 14%에서 實績值는 10.6%로 計劃을 下廻하였고 또한 秋穀이 凶作이었음에 불구하고, 海外貯蓄이 計劃值인 6.1%에서 實績值가 8.6%로 上廻하였기 때문에 經濟成長率은 8.4%란 相當히 높은 水準을 結果할 수 있었다. 따라서 高度成長政策에 있어서의 外資의 役割이 漸次로 더 큰 比重을 나타낸다.

둘째 外資導入은 必須的으로 元利金償還의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償還할 수 있는 經濟力을 培養하지 아니 하고 消極的인 外資政策으로 「브레이크」를 건다면 오히려 從前分에 대한 償還力自體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輸出增大에 의한 國際收支의 改善策을 綿密히 樹立함은 물론, 經濟力 自體를 急

速히 強化함으로써 償還能力을 自動的으로 解決하는 方向으로 積極的 外資政策이 繼續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深刻한 反論이 提起된다. 즉 修正計劃대로 達行한다면 期間中 外資導入 規模는 1次計劃期間中の 導入實績의 4倍를 上廻할 것이며 2次計劃의 原計劃値보다도 80%以上을 超過하는 劃期的인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外資가 實地로 導入된다고 할 때 76년까지의 借款負債累計는 19億弗水準이 될 것으로 보이며 71年の 負債殘高도 대략 17億弗水準에 이를 것이다. 또한 殘餘期間中 到着될 借款은 財政借款의 性格을 띤것(5億弗)보다 商業借款(7億弗)분이 優勢할 것으로 되어 있어 1971年の 借款負債는 商業借款 10億弗, 財政借款 7億弗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商業借款의 元利金償還率은 年率 16%水準이고, 財政借款은 年率 4%水準으로 推定되는 것이므로 71年以後의 元利金償還壓力은 年 2億弗水準이 된다고 推定할 수 있다. 만일 元利金償還의 健全比率을 外資稼得額의 9%線이라고 前提한다면 2億弗의 元利金償還을 合理的으로 견딜 수 있는 外貨稼得率은 71年에 가서 다시 22億弗水準이 되어야 한다는 計算이 算出된다. 그러나 合理的이고 無理없는 元利金償還을 위하여 經常外貨受取額을 22億弗로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4年間에는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그러한 外資를 到着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吸收 消化시킬 수 있는 經濟基盤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발생한 6億弗線의 外資導入으로도 우리나라 經濟는 심각한 波動要因을 形成시켰던 것이다. 莫大한 通貨膨脹으로 變則的인 金融이 形成되고 民間部門은 相對的으로 逼迫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外資導入을 지나치게 擴大한다는 것은 비싼利子를 支拂하고서 쓸데없이 外換保有高단 늘리고 通貨를 膨脹시켜 金融을 더욱 攪亂시키고 通貨와 物價를 刺戟시킬 것이다.

더우기 작은 規模의 外資導入만으로도 이미 代拂波動을 數次에 걸쳐 겪어 왔으며 때문에 產業銀行은 現金不足에 處하여 正常的인 開發金融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劃期的인 外資導入의 增加가 外換保有額增大를 통한 金融波動과 事業不振에 따른 代拂波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具體的 戰略을 먼저 講究해야 할 것이다.

또한 外資導入만으로도 投資가 이룩될 수 없다는 것도 明白한 것이므로 外資에 對應하는 內資動員問題도 納得할 만큼 考慮하여야 한다. 內外資投入比率을 半半으로 看做한다고 하더라도 政府의 外資導入計劃에 蹉跌이 없으려면 해마다 1千億원 水準의 內資가 所要될 것이다. 動員된 內資가 전부 借款企業體에 充當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必要內資는 적어도 年 2千億원規模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內資調達計劃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마련되는가가 문제로 擡頭된다. 그리고 1년에 1千億원의 內資가 外資와 結合되어야 한다면 殘餘期間동안 적어도 3千億원의 內資가 捻出되어야 할 것이므로 借款企業의 內資에 대한 利子負擔은 71년에 가서는 最高 7百億원, 最低 3百億원의 規模가 될 것이며, 이에 追加하여 外資에 대한 元利金償還負擔도 年 6百億원 規模가 될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러한 借款企業의 內外資負擔이 代拂波動, 延滯波動등으로 擴大되지 않으려면 法人企業의 要素所得이 지금 보다 얼마나 늘어야 하는가도 正確히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2) 借款導入條件의 改善과 直接投資誘致의 增大

1967年 9月 1日 現在 基準으로 確定된 外資導入實績을 보면 總額 261,715千弗에 達하며 그중 財政借款 48.5%, 商業借款 44.1%, 投資事業 7.4%로 投資事業의 比重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65年以後는 어느정도 投資事業이 活潑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外國人投資를 誘引할 수 있는 政治, 經濟的與件 未備가 漸次 解消되고 特히 1次 5個年計劃의 終半期에서 外國人投資에 좋은 與件을 提供한데 基因한다. 그런데 美國 및 日本을 除外한 他國의 外資導入은 極히 적고 特히 國際機構로 부터 導入된 外資는 1962年 IDA 14百萬弗에 不過한 實情이다. 따라서 앞으로 導入될 長期資本은 可能的 限 國際開發金融機構로 부터의 資金獲得에 힘써야 한다는 것과 商業借款에 있어서 日本一邊倒의 現狀이 是正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有利한 條件의 外國人投資事業誘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한편 確定된 借款總額 758,075千弗(1967.9.1 現在)에 대한 元利金償還義務額은 1,064,245.3千弗이며 1966年末까지 33,136.3千弗이 償還되고 1967年以後 償還할 元利金은 1,031,109千弗로 되어 있다. 1962年 부터 始作된 元利金償還額의 對商品輸出比率은 1962年이 1.9%, 1963年 5.1%, 1964年 5.0%, 1965年 4.1%, 1966年 5.6%로서 4~5%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67年 以後는 同比率이 大體로 9~10% 水準에 達하여 IMF가 適正元利償還負擔水準이라고 하는 10%線에 肉迫하고 있는 것이다. 즉 現在의 確定借款만으로도 1966년까지와는 달리 1967年以後의 元利金償還額은 輸出의 10%에 肉迫하고 있으며 1968年에 10.3%가 豫想되어 IMF가 適正負擔水準이라고 한 10% 限界線을 上廻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元利金償還과 關聯시켜 볼 때 短期商業借款導入은 事實上 限界에 다달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같은 借款事情外에 認可된 外國人投資事業이 1967年 9月 1日 現在 物資到着基準으로 볼 때 33,902千弗이 되며, 이에 따른 元金 및 配當金의 送金이 있을 것이므로 現實的

인 對外負擔은 本計劃上의 金額보다 커질 것이라는 點도 看過할 수 없다.

또한 이제 借款種別로 償還期間, 据置期間, 利子率등을 總括하여 보면 <第 4-14 表>와 같은 바 表面上 나타난 數字는 韓國에 導入된 借款의 償還條件의 一般의水準이 世界全體 開發途上國들의 平均對外負債條件보다는 比較的 有利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償還條件에 있어서의 이러한 相對的 有利性은 그대로 元利金償還負擔에 있어서의 有利性으로 解決되기에는 難點이 있다. 그것은 所謂 借款供與國에의 購買結束이라는 無視할 수 없는 否

34個開發途上國對外負債의 加重平均償還條件

<第 4-14 表>

1967年 9. 1 現在

區 分	利子率	据置期間	償還期間	區 分	利子率	据置期間	償還期間
雙務의 公共借款	3.50	6.6	26.9	民間 借款	6.01	1.2	5.8
韓 國	2.48	9.56	25.62	韓 國	5.72	1.87	7.69

資料 : IBRD, Annual Report, 1965-66

定的 要因에 의해, 그와 같은 有利한 條件의 大部分이 相殺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事實이 考慮되어야 하는 때문이다.

이와같이 볼 때 앞으로 借款條件面에서의 有利性을 追求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資本財 導入의 경우 老朽施設 또는 非經濟性을 띤 資本財가 流入될 可能性을 排除하면서 國際的 信用이 保障되는 外國投資로의 轉換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導入外資는 大部分 弗貨를 硬貨에 의한 償還으로 되어있는데 自國通貨 또는 現物償還의 문제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自國通貨 또는 現物償還은 國際收支負擔을 輕減하는 軟借款(soft loan)이 되므로 國際收支의 改善에 대한 寄與度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直接投資誘致에 있어서 留意할 點으로는 投資元金償還 및 果實送金에 대한 合理的인 保障등 制度的 措置가 必要한 것이다.

(3) 導入될 外資의 效率의 使用을 위한 內資의 確保

導入될 外資의 效率의 使用은 圓滑한 內資調達을 前提條件의 하나로 한다. 그런데 大部分의 民間借款및 直接投資事業體는 그 內資調達에 있어서 主로 政府의 財政金融上의 支援이나 現金借款등에 依存하여 왔음이 事實이다. 內資調達을 위한 이러한 財政金融上의 過度한 支援은 財政「인프레」를 惹起시킬 憂慮가 있으며 또한 現金借款등에 의한 內資調達은 金融秩序의 歪曲 및 外換「인프레」등을 誘發시킬 憂慮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外資事業 特히 借款事業의 內資調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點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外資導入의 窮極的 目的이 導入된 外資를 效率적으로 活用함으로써 自立經濟의 確立을 期하려는데 있으므로 新規借款을 許可함에 있어서는 當該 借款事業의 經濟的 技術的 妥當性의 明確한 分析을 基礎로 하여 內資調達 및 經營能力등 外資受容能力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를 綿密히 檢討해야 할 것이다.

둘째 政府의 外資事業을 위한 內資支援은 經濟開發을 위하여 必要不可缺한 事業에 局限하여야 한다. 特히 內資調達을 위한 現金借款의 導入에 있어서는 그 使用 및 管理를 嚴格히 함으로써 金融秩序의 攪亂등 國民經濟에 미칠 副作用과 惡影響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는 適切한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要컨대 外資가 量的으로 急激히 導入되는 昨今에 있어서 外資事業의 對象選定이 經濟構造改編을 위한 主要要因의 하나임을 注目하여 國內消費財보다는 輸入代替나 輸出用産業을, 消費財보다는 生産財産業에 置重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外資導入의 激增에 따른 外換受入의 相對的 「홀딩」이 海外部門의 通貨量增大를 通하여 一定基調의 沮害要因으로 作用하지 않도록, 外資導入 및 自力輸入의 外換需要間의 平衡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補完措置가 取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外換導入은 量的 擴大置重보다는 質的인 嚴選을 期함으로써 生産的인 部門으로서 健全한 內資調達能力이 있는 企業에 優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國內에서 建設 또는 生産供給이 可能한 「프로젝트」나 資本財의 導入은 이를 積極 抑制할 것이며 特히 輸出産業의 경우 國際單位에 맞는 價格 및 品質을 갖는 製品이 生産되도록 配慮하여야 할 것이다.

(4) 對外的 與件의 檢討

「유럽」 및 「뉴욕」資本市場을 비롯한 거의 모든 國際資本市場의 金利는 最近 2~3年間 急激한 上昇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援助供與國들은 諸般國內經濟事情으로 因하여 無償 내지 이에 類似한 軟借款을 大幅 줄이고 있음으로 해서 借款與件은 硬化一路에 있다. 이에 더하여 借款國은 資金調達의 어려움으로 因하여 輸出信用을 包含한 短期高利의 民間借款이라도 導入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있으며 그나마 國際市場에 進出하여 資本을 調達할 수 있는 開發途上國은 그 數를 헤아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全般的인 趨勢를 감안할 때 特惠를 원하는 一方의인 條件의 緩和 要求가 先進援助國에 의해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展望은 매우 稀薄하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으로서 既存의 世界銀行등 多角的 經協機構의 比較的 有利한 條件의 公共借款에 더욱 많이 依存함으로써 對外負債中 不利한 條件의 民間借款의 比重을 줄이는 것이 훨씬 容易하고도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이들 機構 역시 그의 資金源의 一部를 國際金融市場에서 調

達하고 있는 實情인 동시에, 先進國을 中心으로 하는 偏重된 機構의 運營은, 이들 機構로 부터의 借款이 後進開發途上國에게 絶對적으로 有利한 것이라는 保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借款條件의 平準化문제를 위하여 「콘서어티움」(consortium)의 結成, 그 效果的 運用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適切한 解決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콘서어티움」(consortium)은 자칫하면 先進國들이 資金供給에 있어서의 競爭을 緩和하기 위한 協議體로 轉落할 위험을 內包하고 있으며 條件의 平準化는 後進開發途上國에 有利한 方向이 아닌 上方의인 平準化가 될 憂慮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해결은 援助供與國들의 보다 많은 理解와 보다 많은 關心에 의한 새로운 追加的 措置, 예컨대 IDA 機能強化措置등이 可能한가의 與否에 달려있다. 이러한 追加的 措置를 위하여서는 後進國의 統一, 調整된 意思의 反映, 先進國에 대한 結合된 영향력의 行使가 이루어질 수 있는 契機가 必要할 것이나, 어떠한 形態의 緩和 또는 平準化가 開發途上國에 바람직한 것이던 間에 그것은 先進國들의 理解를 隨伴하는 協助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不可能한 것일 것이다.

V. 人口 및 雇傭計劃上の 문제점

1. 經濟發展과 人的資源

一般的으로 經濟開發計劃의 要諦는 資源의 調達과 調達된 資源의 配分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資源의 調達이라고 하면 物的資源의 調達과 人的資源의 動員을 동시에 意味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低開發諸國의 共通된 現象이 人的資源에 비하여 物的資源——第2次的인 生産財——의 不足을 預치 못하고 있음으로 因하여 종래의 經濟開發 및 成長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自然히 蓄積된 資本生産財 내지 自然資源등의 貨幣的 物的資本의 面이 重視되었고 生産活動의 擔當者로서의 人力 즉 人的資源의 문제는 극히 輕視되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經濟開發計劃의 焦點이 不足資本問題의 打開에 集中되고 人的資源의 動員 및 配分問題가 2次的인 것으로 取扱되어 온 政策方向은 最近에 이르러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즉 經濟發展 및 成長問題와 關聯하여 上記한 物的資本과 더불어 人間의 知識, 技能등을 資本으로 規定하려는 傾向이 現實化되어 가고 있다. 換言하면 오히려 人爲的資源을 發展의

戰略的 要因으로 看做하고 人的資源의 開發과 活用을 産業化 및 나아가 近代化의 必要充
分條件으로 認識할려는 傾向이 國內外的으로 漸高해지고 있다.

한편 經濟發展과 人口問題와의 關聯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 經濟發展의 成果를 1人當
國民所得의 增大라고 하는 量의概念의 把握下에 特定社會에 주어진 人口는 開發成果의
分配問題에 있어서만 關係를 갖는 것으로 마치 人口增加率은 實質經濟成長率을 그만큼 引
下시키는 負의 作用만을 하는 것으로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쿠즈네츠」(S. Kuznets)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人口의 增加는 餘他條件이 同一한 限 勞動力의 增加를 의미하며
增加된 勞動力이 만약 從前 또는 그 以上の 資本裝備量을 供給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勞働者當生産高를 算出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그것은 原則
的인 문제로 돌아가 人類歷史의 發展過程을 볼 때 人間이 生産財를 통한 生産方法 즉 迂
廻的 生産方法을 擇하고 또 그것이 可能해 질 수 있던 根據는 어디까지나 人間의 勞動成
果가 支出된 勞動力의 再生産을 補償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 있다는 儼然한 事實로
부터 說明되어 진다.

이처럼 後進國의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人的資源의 開發問題가 輕視되어
있는바 韓國에 있어서도 이러한 傾向은 크게 다르지 아니 했다고 볼 수 있다.

2. 第1次5個年計劃中 人口 雇傭部門의 計劃 및 評價

1) 人口 部門

第1次5個年計劃期間(1962~66年)중에 있어서 總人口의 趨勢는 <第5-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想定하였다. 즉 原計劃에서는 1955年 9月 1日의 第1回 簡易人口調查와 1960
年 12月 1日의 第2回 人口國勢調查에 의하여 同期間中 年間 平均 人口增加率 2.88%를
基礎로 하고 計劃期間中 家族計劃에 의한 人口의 出産率調節을 감안하여 同期間中の 人口
增加率을 18.2%, 年平均增加率을 約 2.81%로 策定하였다가 補完計劃에서는 1964~66年
의 3個年間 年平均 2.6%로 增加하는 것으로 策定되어 原計劃보다 훨씬 引下調整하였다.

이리하여 計劃基準年度인 1960年의 韓國總人口 24,694千人은 原計劃上에는 29,185千
人(18.2%增)으로, 다시 補完計劃上에는 29,016千人으로 (17.8%增) 想定하였다.

이러한 總人口趨勢에 있어서의 人口增加의 引下調節 즉 從來의 年平均 人口增加率 2.88
%를 目標年度에는 2.5%로 引下시키기 위한 唯一한 政策手段은 政府의 家族計劃事業이
었다. 政府는 人口의 높은 自然增加率이 經濟發展의 促進의인 要素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經濟發展의 原動力인 投資增大를 위한 貯蓄財源의 蠶蝕을 통한 經濟成長 및 所得向上의
要件으로 된다는 原理아래 1963年末頃부터 家族計劃事業을 強力히 推進해왔다.

同表에서 보듯이 1965年 부터 人口增加率이 크게 鈍化되고 또한 目標年度인 1966年의 年人口가 29,086千人에 達하여 補完計劃上의 想定值 29,016千人보다는 약 70千人을 초과했으나 原計劃上의 29,185千人보다는 약 99千人이 未達된 한편 成長率에 있어서도 原計劃值 18.2%보다는 0.4%가 적은 17.8%로 抑制하여 計劃期間中 年平均 2.75%의 增加率을 示顯하게 되었다. 따라서 第1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있어서 政府의 人口調節政策은 어느정도 計劃대로의 實績을 올렸다고 평가되어 진다.

總人口成長의 計劃및 實績(年中人口) (1962~66年)

<第5-1表>

單位: 千人

	原 計 劃		補 完 計 劃		實 績	
	人 口	增 加 率	人 口	增 加 率	人 口	增 加 率
1960(A)	24,694	2.88	24,694	2.88	24,694	2.88
1962	26,136	2.88	—	—	26,125	2.85
1963	26,881	2.85	—	—	26,868	2.84
1964	27,639	2.82	27,592	2.70	27,631	2.84
1965	28,407	2.78	28,309	2.60	28,377	2.70
1966(B)	29,185	2.74	29,016	2.50	29,086	2.50
B/A (%)	118.2	—	—	—	117.8	—
1962~66年間平均增加率	—	2.81	—	—	—	2.75

資料: 經濟企劃院

2) 勞動力 및 雇傭部門

한편 이러한 人口增加率의 引下調節과 함께 勞動力 및 雇傭部門에 있어서는 우선 同計劃期間中 雇傭의 增大가 勞動力의 供給趨勢를 上廻하여 失業率의 低下를 가져오도록 策定하였다. 즉 <第5-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計劃上에서 勞動力人口가 年平均 2.14%로 增加되고 雇傭이 4.7%로 增大되는 것으로 策定하여 失業率이 1962年의 22.3%로 부터 1966년에는 14.8%로 줄어들도록 策定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雇傭部門의 計劃은 大部分의 計劃事業이 勞動集約的인 性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資本集約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實現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補完計劃에서는 이를 多少 現實化하여 1962年 8月부터 實施하게 된 經濟活動人口調査에 의거, 勞動力人口를 再調整하였으며 雇傭의 增大도 原計劃上의 年平均 增加率 4.75%보다는 훨씬 未達하는 年平均 2.03%로 策定하였다.

이와 같이 雇傭增大率의 引下調整에 따라 失業水準은 原計劃에 있어서와는 計算基礎가 다른 즉 1週間の 調査期間中 또 1時間도 收入있는 일에 從事하지 못한 完全失業者의 概念으로서 1962年의 8.4% 失業率로 부터 1966년에는 8.5%로 약간 늘어나게끔 想定되었다.

勞動力 및 雇傭部門의 計劃修正

<第5-2表>

單位：千人

	1962		1966		年平均增加率(%)	
	原計劃	補充計劃	原計劃	補充計劃	原計劃	補充計劃
勞動力	10,931	9,235	11,868	10,035	2.14	2.17
雇傭	8,497	8,456	10,111	9,187	4.75	2.03
失業	2,434	779	1,757	848	—	—
失業率(%)	22.3	8.4	14.8	8.5	—	—

資料：經濟企劃院

註：補充計劃은 1960年 國勢調查를 基礎로한 推計로 失業의 內容은 完全失業을 가리킴.

그런데 第1次5年計劃期間中の 勞動力 및 雇傭에 대한 實績의 評價는 統計基準의 相異 및 未備로 困難한 實情이다.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調查의 結果值에 依據하여 補充計劃에 대한 實績對比를 행하면 <第5-3表>와 같다.

同表에 따라 年間 增加率을 통한 勞動力 및 雇傭部門의 實績을 보면 먼저 勞動力의 增加에 있어서 期間中 平均計劃值 2.2%를 0.3% 超過하는 2.5%를 達成하였고 雇傭의 增加는 비록 1966年中에는 計劃值를 未達하는 1.58%의 增大에 불과했으나 期間中 平均으로 計劃值 2.03%를 크게 上廻하는 2.90%의 實績을 보이었다.

따라서 同雇傭部門의 實績이 計劃을 초과하는 好調를 보임으로써 失業水準에 있어서는 目標年度의 完全失業率計劃值 8.5%를 훨씬 下廻하는 7.1%의 失業率을 記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人口・雇傭部門의 實績評價와 문제점

勞動力 및 雇傭部門의 實績

<第5-3表>

單位：千人

	計 劃					實 績				
	勞 動 力		雇 傭		失業率	勞 動 力		雇 傭		失業率
	人 數	增加率	人 數	增加率		人 數	增加率	人 數	增加率	
1962(A)	9,235	—	8,456	—	8.4	—	—	—	—	—
1963	9,447	2.3	8,632	2.08	8.6	8,652	—	7,947	—	8.1
1964	9,645	2.1	8,816	2.13	8.6	8,893	2.8	8,210	3.31	7.7
1965	9,838	2.0	9,003	2.12	8.5	9,199	3.4	8,522	3.80	7.4
1966(B)	10,035	2.0	9,187	2.04	8.5	9,325	1.4	8,659	1.58	7.1
年平均增加率	—	2.2	—	2.03	—	—	2.5	—	2.90	—

資料：經濟企劃院

註：計劃은 補充計劃임.

이처럼 第1次5個年期間中에 이룩한 人口, 雇傭部門의 實績은 總人口의 成長面에 있어서나 勞動力 및 雇傭의 增大와 失業率의 減少面에 있어서 다같이 補完計劃上의 數值(原計劃上의 數値는 別途임)를 上廻達成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實績의 評價는 그 裏面에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첫째 總人口의 趨勢에 있어서 비록 目標年度의 人口의 自然增加率을 計劃值 2.5%로 縮少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人口增加率의 引下는 정부가 내세우는 家族計劃事業에 의한 出生率의 低下만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人口의 海外移動이나 都市間의 人口移動에 따른 社會的인 諸與件이 상당히 作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의 높은 人口增加率이 經濟開發을 阻害하는 要因으로만 認識되어 産兒率을 急作히 低下시키고 可能한 限 大量의 海外移民을 勸獎하는 정책을 推進해 왔는데 이러한 政策方向은 未久에 世代間에 있어서의 人口의 年齡構成上 不均衡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뿐 더러 보다 많은 價値를 創造할 수 있는 技術者나 技能工 등의 人力이 國內技術의 開發面에서 何等 寄與하는 바가 없이 海外로 流出된다는 것은 長期的인 觀點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다룬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雇傭部門增大에 있어서도 同計劃期間中 計劃值를 上廻하는 實績을 擧揚하였고 나아가 失業率의 減少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眞實한 의미에 있어서의 雇傭增大로 보기에 어려운 點이 있다. 먼저 勞動生産性的 增加에 의해서 雇傭增加率이 GNP 增加率을 下廻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理解가 가지만 兩增加間의 年度別 實績을 對比해 보면 1964, 65, 66 年間に 있어서 GNP 成長率이 各各 8.3%, 7.4% 및 13.4%를 나타내고 있는데 反하여 雇傭增加率은 各各 3.3%, 3.8%, 1.6%로 나타나 兩增加率間에 있어서 아무런 相關性을 發見할 수 없다.

다음 産業別 就業構造의 變動을 보면 目標年度에 있어서의 各産業別 就業構成比를 計劃上에는 1次産業 64.6%, 2次産業 10.7%, 3次産業 34.7%로 策定하였었는데, 經濟企劃院 調査에 의한 同年中의 産業別 就業構成比는 1次産業 57.9%, 2次産業 13.3%, 3次産業 28.8%로 各各 變動하여 (<第5-4表>參照) 計劃值에 比하여 1次産業은 6.7%가 더 減少한데 反하여 2次産業과 3次産業은 各各 2.4% 및 4.1%가 초과되었다. 이러한 實績은 一見 1次産業部門에 就業되어있던 勞動力이 2,3次産業部門으로 轉移되어 雇傭構造의 近代化를 더욱 促進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2次産業보다도 3次産業의 構成比가 더욱 增大하였다는 것은 正常的인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의 2次産業發達에 따른 1次産業部門

의 勞動力轉移라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以上과 같은 產業別就業構造의 變動과 結付하여 同計劃期間中 失業水準의 好轉, 즉 目標年度의 計劃失業率 8.5%를 크게 下廻하는 7.1%의 實績도 根本적으로 失業者에 대한 範疇規定이 勞動할 意思와 能力을 가진 者로서 調查週間中 단 1時間도 收入이 있는 일에 從事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農漁村의 潛在失業人口나 都市地方의 不完全失業人口가 完全히 除外된 기초위에서 算定된 것이다. 그러므로 1966年의 失業率 7.1%가 現韓國의 實質的인 失業狀態를 그대로 反映하는 數值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1次産業部門에 있어서 生計의 바탕이 不安定하고 극히 基本的인 生活資料의 需要단을 充足시킬 수 있는 就業狀態로 移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產業別雇傭構造의變化

<第5-4表>

單位：%

	全 產 業		1次 產 業		2次 產 業		3次 產 業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1962	100.0	100.0	66.1	65.2	9.4	10.7	24.6	24.1
1963	100.0	100.0	65.7	63.2	9.7	11.2	24.5	25.6
1964	100.0	100.0	65.6	61.9	9.7	11.2	24.7	26.9
1965	100.0	100.0	65.0	58.7	10.3	13.2	24.7	28.1
1966	100.0	100.0	64.6	57.9	10.7	13.3	24.7	28.8
1962~66 平 均	100.0	100.0	65.4	61.4	10.0	11.9	24.6	26.7

資料：經濟企劃院

3. 第2次5個年計劃中 人口·雇傭部門의 計劃內容과 그 문제점

1967~71年間을 計劃期間으로 하는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은 6個項目의 同計劃의 基本目標中 雇傭을 增大하고 한편 家族計劃의 推進으로 人口膨脹을 抑制할 것을 내걸어 向後 5個年間的 우리나라 人口·雇傭政策에 대한 基本方向을 提示하였다.

이러한 政策基調아래 確立된 人口·雇傭部門의 計劃內容을 통해 앞으로 韓國의 人口·雇傭構造가 如何히 變動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計劃內容

(1) 過大한 人口增加는 經濟成長과 所得水準向上의 相對的인 制約要因으로 된다고 規定하고 第1次5個年計劃에 이어 계속 多產少死型 人口模型을 少產少死型으로 變型하기 위하여 家族計劃事業을 強力히 普及 實施한다. 따라서 總人口의 自然增加率을 基準年度인 1965年의 2.7%로 부터 目標年度인 1971년에는 2.0%로 低下시킨다. 또한 人口增加率의 鈍化

와 함께 都市와 農漁村間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出生率 및 死亡率의 格差를 是正함으로써 人口의 地域的 格差의 減少에 注力한다.

(2) 少產少死型으로의 人口模型 轉移에 따라 現在의 「피라미」型 人口構造의 修正을 통해 총인구에 대한 滿 14 세 이상의 生産年齡人口의 比重은 1965 年의 58.2%에서 1971 年에는 59.2%로 擴大시킨다.

(3) 生産年齡人口의 比重增大로 勞動供給量을 增大시킬 것이며 특히 技術教育 및 訓練의 強化, 保健衛生環境의 改善, 女性勞動의 增加 그리고 工業團地의 造成과 農業副業의 擴大를 통한 季節的인 農業遊休勞動力的 吸收등과 같은 方策을 講究함으로써 生産年齡人口와 勞動供給量과의 比重 즉 勞動力比率를 提高시킨다. (1965 年의 55.1%로 부터 1971 年에는 56.9%로 提高됨)

(4) 新規計劃投資에 의한 勞動力需要의 增大에 힘입어 計劃期間中 産業別 雇傭增加가 年平均 農林水産業 2%, 鑛工業 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 5% 등으로 策定하여 目標年度의 雇傭規模는 <第 5—5 表>에서 보는 것처럼 늘어난다. 따라서 完全失業率은 1965 年의 7.4%에서 1971 年에는 5.0%로 縮少시킨다.

한편 科學技術의 向上, 經營合理化등을 통하여 勞動力需要의 質的高度化와 勞動生産性的 提高를 期하며 따라서 計劃期間中 1 人當生産額을 <第 5—6 表>에서 보는 것처럼 提高시킨다.

(5) 計劃期間中 특히 鑛工業部門의 投資增大를 통하여 農業部門의 潛在的 過剩勞動力量을 同部門으로 吸收시켜 非生産的이며 前近代的인 雇傭構造 즉 農林水産業이 63.5% 鑛工業이 9.2%를 차지하는 1965 年의 雇傭構造를 1971 年에는 各各 58.4% 및 12.4%로 바꾸어 雇傭構造의 近代化를 期하였다.

이리하여 第 2 次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71 年의 韓國 人口·勞動力 및 雇傭의 構造는 다음 <第 5—5 表>와 같이 變貌하게 된다.

2) 計劃의 主要政策手段

以上과 같은 人口 雇傭部門의 計劃內容인 즉 人口成長率의 鈍化와 人口의 地域的 格差의 縮少, 生産年齡人口構成比率의 增加, 勞動의 供給擴大 및 勞動力比率의 上昇, 雇傭增大 및 生産性的 向上등의 計劃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計劃의 主要政策手段으로서는

(1) 人口의 自然成長率低下를 위한 家族計劃事業의 推進 및 農漁村을 비롯한 零細層의 多子多福觀의 改造.

(2) 農漁村 零細民의 無作定 都市流入의 防止를 위하여 衛星都市建設을 통한 大都市人

人口, 勞動力 및 雇傭

<第5-5表>

單位: 千人

	1965(A)		1966		1971(B)		B/A×100 (%)
	人員	構成比 (%)	人員	構成比 (%)	人員	構成比 (%)	
總人口(年央)	28,377	100.0	29,086	100.0	32,429	100.0	114.3
都市人口	9,079	32.0	9,539	32.8	12,259	37.8	135.0
農村人口	19,298	68.0	19,547	67.2	20,170	62.2	104.5
生産年齡人口(4歲以上)	16,518	58.2	16,970	58.3	19,187	59.2	116.2
勞動力	9,199	32.1	9,486	32.6	10,917	33.7	118.7
雇傭 ¹⁾	8,522	100.0	8,804	100.0	10,371	100.0	121.7
農林水產業	5,411	63.5	5,514	62.6	6,058	58.4	112.0
鑛工業	786	9.2	852	9.7	1,283	12.4	163.2
社會間接資本·其他「서비스」業	2,325	27.3	2,438	27.7	3,030	29.2	130.3
完全失業者	677	—	682	—	546	—	80.6
完全失業率(%)	7.4	—	7.2	—	5.0	—	—

資料: 經濟企劃院

註: 1) 勞動時間, 所得, 技術등을 勘察할때 相當한 數에 達할 것으로 推定되는 潛在失業者 包含.

<第5-6表>

勞動生産性的變動

	1965			1971			B/A(%)
	產額出 (10億圓)	雇傭 (百萬人)	人當產出額 (千圓)(A)	產出額 (10億圓)	雇傭 (百萬人)	人當產出額 (千圓)(B)	
農林·水產業	367.4	5.4	68.0	532.0	6.1	87.2	128.2
鑛工業	527.9	0.8	659.9	1,021.1	1.3	785.5	119.0
社會間接資本·其他「서비스」業	459.3	2.3	191.4	752.4	3.0	250.8	131.0

資料: 經濟企劃院

口の分散, 工場建設의 分散을 통한 新規 및 地方 鄉市의 開發促進, 開墾 및 定着事業을 통한 農業部門遊休勞動力의 自體內吸收 등 方策의 講究.

(3)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石油化學工業, 鐵鋼工業 및 機械工業 등 資本集約인 產業의 開發과 併行, 勞動力의 量的需要가 큰 勞動集約인 產業의 一時的 育成.

(4) 質·量 양면의 雇傭增大를 위한 產災保險, 年金制度, 職業紹介 등 勞動條件의 安定 및 改善 등을 列擧하고 있다.

3) 문제점

以上으로써 第2次5個年計劃中 人口·雇傭部門에 대한 計劃內容과 그 主要政策手段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지난 第1次年度의 成果를 살펴 본 다음 韓國의 人口·雇傭構造의 現實인 特殊性에 비추어 앞으로 남은 計劃期間中 이러한 計劃內容이 과연 順調롭게 達

成될수 있을 것인 가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먼저 第2次5個年計劃의 第1次年度인 1967年中의 人口・雇傭部門의 成果를 考察해 보자.

먼저 總人口의 成長趨勢에 있어서 計劃上의 總人口의 變動은 前記 <第5—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年の 29,086千人으로 부터 1967년에는 29,784千人으로 年間 約 2.4%가 成長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推計한 1967年末의 南韓地域 總人口는 30,067千名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66年 10月 1日 현재의 人口「센서스」의 結果值 29,208千人을 基礎로 하여 1967年中의 出生率 및 死亡率趨勢를 勘案하여 算定한 것이라고 하는바 1967年中의 人口增加率は 計劃值 2.4%와 거의 맞먹는 것으로 發表되고 있다. 그러나 同調查統計局的 推計值와는 달리 地方行政當局의 報告에 의한 集計로는 同年中の 人口成長率이 약 1%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음 역시 同調查統計局的 1967年 3/4分期 經濟活動人口調查에 따라 1967年 9月現在의 勞働人口 및 雇傭의 變動狀況을 보면 全般的으로 2次産業을 中心으로 全國의 經濟活動人口가 예의 增加趨勢에 비추어 크게 成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9月末現在 總經濟活動人口는 10,278千人으로서 前年 同期와 對比, 9.6%가 늘어났고 生産年齡人口에 대한 比率, 즉 經濟活動參與率도 1966年 9月の 57.6%에서 59.8%로 增加하였다. 이는 計劃上의 勞働力人口 9,773千人을 505千人이나 上廻하였고 經濟活動參與率인 56.1%도 크게 超過한 數值이다.

한편 雇傭部門에 있어서도 計劃上의 雇傭規模 9,094千人보다 약 639千人이나 더 많은 9,733千人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計劃上의 2次産業部門雇傭比率 10.2%가 무려 15.3%로 늘어남에서 그 主된 理由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經濟活動人口의 變動에 따라 完全失業者는 545千人으로서 5.3%의 失業率을 示顯하였는데 이는 計劃上의 數值 679千人 및 6.9%와 比較하여 상당한 失業水準의 好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4分期間의 勞働力 및 雇傭部門의 實績은 年中 同期間의 比較的 높은 數值를 보인다는 季節的 要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967年の 實績을 그대로 反映할 수는 없다. <第5—7表>에서 보는 것처럼 各分期別로 상당한 變動을 나타내고 있는바 1967年中의 2/4分期의 動向은 前年同期에 비해 별다른 雇傭部門의 成長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現實的인 韓國의 人口・雇傭構造의 特殊性에 비추어 第2次5個年計劃中 人口・雇傭部門의 計劃이 어떠한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는 가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人口增加率의 鈍化

分期別 經濟活動人口의 動向

<第 5-7 表>

單位：千人

	14세以上 人口(A)	經濟活動 人口(B)	就業者 (C)	完全失業者 (D)	經濟活動參 加率(B/A)	就業率 (C/B)	完全失業率 (D/B)
1966. 3	16,687	8,943	8,174	769	53.6	91.4	8.7
. 6	16,743	11,006	10,392	614	65.7	94.4	5.6
. 9	16,917	9,736	9,110	626	57.6	93.6	6.4
.12	17,012	7,616	6,960	656	44.8	91.4	8.6
66 年 平 均	16,840	9,325	8,659	666	55.4	92.9	7.1
1967. 3	17,140	8,998	8,294	704	52.5	92.2	7.8
. 6	17,149	10,954	10,397	557	63.9	94.9	5.1
. 9	17,188	10,278	9,733	545	59.8	94.7	5.3

資料：經濟企劃院

「달사즈」類의 人口理論이나 「케인즈」類의 人口理論을 우리는 그대로 信奉할 수는 없다. 특히 人口의 減少는 有效需要의 不足을 誘發하여 慢性的인 不況을 招來하게 한다는 「케인즈」의 所論은 오늘날 開發途上인 韓國의 人口構造上으로 보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立場이다.

어쨌든 韓國은 解放後 극히 높은 人口增加率을 示顯해 왔고 따라서 人口政策의 主要目標은 높은 人口의 自然增加率을 여하히 鈍化시키느냐에 놓여져 있다. 앞에서 본 第 2 次 5 個年計劃中の 人口部門計劃에 대한 主要政策手段도 이러한 人口의 增加率鈍化를 위한 家族計劃事業에 強力한 推進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産兒制限을 內容으로 하는 家族計劃事業을 통해 夙年 目標年度인 1971 年の 人口成長率을 2.0%로 까지 引下시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家族計劃實施에 대한 각종 調査結果를 보면 1965 年 保健社會部의 全國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는 避妊贊成率이 88.8%(都市 91.6%, 農村 87.5%)로 나타났고 1966 年 人口問題研究所의 서울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는 83.9% (45-49 世간의婦人을 除外하면 84.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贊成率中에서 다시 直接 家族計劃을 實施하고 있는 比率을 보면 1965 年(保健社會部, 全國)에는 26.9%였는데 1966 年(人口問題研究所, 서울)에는 27.6%로 나타났다. 同 比率은 妊娠能力을 가진 全婦人中에서 家族計劃을 實施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實施하고 있는 婦人間의 百分率으로써 上記한 贊成率과 실제 實施率間에는 顯著的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66 年 保健社會部 調査에 의한 한 世帶의 平均 希望子數는 3.9 名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중 男兒 2.4 名, 女兒 1.5 名으로 男兒에 대한 慾望이 매우 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家族計劃에 대한 贊成率 및 實施率

<第 5-8 表>

單位：%

調査機關	調査對象	調査年度	家族計劃 贊成率	家族計劃實施率		
				過去實施率	現實施率	計
保健社會部	全 國	1964	—	6.2	16.2	22.4
		1965	88.8	6.8	20.1	26.9
人口問題研	서 울	1966	83.9	6.2	21.4	27.6

資料：人口問題研究所，『人口問題論集』第 3 號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贊成이나 實施 또는 希望子女數에 있어서 共通된 현상은 調査對象이 教育水準과 生活水準이 높고 低年齡層일수록 贊成率 및 實施率이 높고 希望子女數가 적다는 傾向이다 현재 家族勞動에 의하여 自家消費經濟構造下에 놓여있고 大家族單位의 生活慣習이 강한 農漁村地域에 대한 同事業의 普及效果는 사실상 큰 期待를 걸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한편 이러한 家族計劃 實施에 대한 統計調査의 結果值와는 달리 14세 이하의 非生産年齡人口層이 1966 年の 「센서스」에는 총 人口의 43.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60 年 「센서스」 結果의 40.6%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4세 以下의 幼年層人口의 比率이 1960~66 年期間中 14.2%로 부터 15.1%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바 이러한 14세 以下의 幼年層人口比率의 增加는 지금까지의 政府家族計劃事業이 사실상 別效果를 擧揚하지 못하였다는 反證으로 될 수 있다.

앞에서 指摘한 現 農村의 經濟構造 및 大家族制度和 특히 딸보다도 아들을 더욱 選好하는 東洋的 慣習속에서 全的으로 強制的 要素가 介入될 수 없는 人爲的인 産兒制限方式을 통한 人口自然增加率의 鈍化計劃은 너무 無理가 있을 것 같다. 나아가 만약 目標年度의 自然增加率 2%를 達成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急作스런 出生率의 低減은 장래 人口의 年齡別 構成에 있어서 生産年齡人口層의 急降과 被扶養人口層의 急增이라는 不合理한 현상을 露呈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過剩人口構造의 解決方案으로 單純한 出產率引下를 통한 勞動力人口의 縮少均衡을 도모하려는 人口政策은 그 限界性を 認定치 않을 수 없다. 오히려 經濟的 諸條件을 改革함으로써 勞動力의 需要를 極大化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베풀어져야만 國民經濟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勞動力人口의 擴大均衡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人口의 都市集中

年齡別 性別 人口構成의 變動

<第 5-9 表>

單位：%

年 齡 別	1960. 12.1			1966. 10.1		
	總 數	男	女	總 數	男	女
總 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	14.2	14.5	13.9	15.1	15.7	14.4
5—9	15.1	15.6	14.6	16.0	16.4	15.5
10—14	11.3	11.8	10.8	12.8	13.0	12.6
15—19	9.5	10.0	9.1	9.3	9.4	9.3
20—24	9.1	9.4	8.9	7.8	8.2	7.3
25—29	7.7	7.3	8.0	7.2	7.1	7.3
30—34	6.2	5.8	6.7	6.3	6.2	6.5
35—39	5.7	5.5	5.9	5.4	5.0	5.8
40—44	4.8	4.8	4.7	4.8	4.7	4.9
45—49	4.1	4.1	4.1	4.0	3.9	4.2
50—54	3.5	3.5	3.5	3.4	3.4	3.4
55—59	2.7	2.5	2.8	2.8	2.7	2.9
60—64	2.3	2.1	2.5	1.9	1.8	2.0
65이상	3.7	3.1	4.5	3.4	2.6	4.0

資料：經濟企劃院

註：總數와의 差는 未詳 및 數差에 基因함.

5 個年計劃上에도 農漁村 零細民의 無作定 都市流入을 緩和하기 위한 方策으로 다음의 3 가지를 들고 있다. 즉 ①서울을 위시한 大都市를 中心으로 衛星都市를 建設하여 大都市人口의 分散을 꾀하며 ②工場이 과도하게 密集되어 있는 大都市內 工場建設의 擴張을 抑制하여 新開發都市에 誘致토록 하는 한편 地方都市의 開發을 促進하여 人口의 大都市集中을 防止하고 ③開墾·定着事業을 통해서 農業部門의 遊休勞動力을 自體內에서 吸收토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政策手段은 産業建設의 地域的 按配와 農業部門勞動力의 自體內吸收문제 로 要約되는데 그 現實的 要請은 農村人口의 都市集中化의 防止策으로서의 以前에 經濟의 地域間 均衡發展이란 면에서 더욱 切實하게 擡頭된다. 어쨌든 長期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이는 人口의 都市集中化를 막기 위한 所望스러운 方策이긴 하나 個別企業의 收支採算上 으로 볼 때 外部經濟條件등으로 인하여 産業의 地域間 分散建設은 現實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韓國의 人口都市集中化는 非農業部門의 産業發展에 따라 生産性이 낮은 農業部門의 人口가 그것이 높은 非農業部門(2次産業部門)으로 流入되는 현상이라기 보

다 正常的인 就業形態가 아닌 流通部門(3次産業部門)에 潜在的으로 寄生하고 僞裝失業形態로 流入되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經濟上의 必要한 移轉所得의 發生根據를 排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人口 都市集中現象을 防止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1960~66年間に 있어서 地域別 平均人口 增加率과 大都市의 人口增加率을 對比해 보면 <第5—10表>와 같다. 同表에 의하면 釜山과 馬山을 除外한 나머지 大都市의 人口增加率은 그 地域의 平均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增加率間의 차이는 向後 第2次5個年計期間中에 있어서도 別般 修正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發生하는 각종 社會문제는 오히려 經濟發展의 障礙要因으로 登場될 것이다.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住宅 交通 및 不動產投資등의 문제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地域別 人口增加率

<第5—10表>

單位：千人

		1960	1966	1960~66年 平均增加率			1960	1966	1960~66年 平均增加率
全 國		24,989	29,208	2.7	全 南		3,549	4,052	2.3
서 울		2,600	3,805	6.8	(光 州)	(288)	(404)	(6.9)	
釜 山		1,207	1,430	2.9	(木 浦)	(139)	(162)	(2.9)	
京 畿		2,599	3,107	3.1	慶 北		3,950	4,479	2.2
(仁 川)	(401)	(529)	(5.5)	(大 邱)	(630)	(847)	(6.0)		
江 原		1,528	1,832	3.1	慶 南		2,975	3,178	1.2
(原 州)	(77)	(104)	(6.1)	(馬 山)	(158)	(155)	(0.3)		
忠 北		1,371	1,550	2.1	(晉 州)	(87)	(107)	(4.0)	
(清 州)	(108)	(124)	(2.6)	(蔚 山)	(81)	(113)	(6.7)		
忠 南		2,660	2,913	1.6	濟 州 道		282	337	3.1
(大 田)	(252)	(316)	(4.4)	(濟 州 市)	(68)	(88)	(5.0)		
全 北		2,267	2,524	1.9					
(全 州)	(188)	(221)	(3.0)						

資料：經濟企劃院

註：比較年度間, 行政區域 개편에 따라 1960年人口에는 地域別調整을 加했음.

(3) 勞動力人口 및 雇傭의 增大

第2次5個年計劃은 14세 以下の 非生産年齡의 比重과 老年層人口比重을 相對的으로 減少시킴으로서 生産年齡人口의 扶養人口數를 줄이겠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指摘된 바와 같이 14세 以下の 幼少年層人口의 比重은 政府의 努力과는 반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自然的인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인한 勞動力없는 高齡層人口의 比重이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生産年齡人口의 扶養人口數는 減少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5個年計劃上에도 14세 以上の 生産年齡人口중에서 家事, 通學, 不具, 年老등 事由로

經濟活動에 參與할 수 없는 人口層을 除外한 勞動力人口의 總人口에 대한 比率을 1965 年の 32.1%에서 1971 年の 33.7%로, 그리고 14세 以上の 生産年齡人口에 대한 比率을 1965 年の 55.7%에서 1971 年 56.9%로 각각 伸長되는 것으로 計劃되어져 있다. 따라서 1965 ~71 年期間中 前者는 18.7%, 後者는 16.2%가 각각 增加되는 것으로 同期間中の 總人口의 增加率 14.3%를 크게 上廻하지 못하게 되므로 勞動力人口의 增大에 관한 計劃自體가 그렇게 意慾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同計劃이 順調로히 達成된다 하더라도 計劃期間中の GNP 成長率 年 7%(年次別 實行計劃에서는 年 10% 以上으로 策定하고 있음)와 比對할 때 人口의 勞動力比率 또는 生産年齡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은 크게 提高되지 못할 것이므로 勞動力의 量的需要的 擴大化問題는 그대로 存續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雇傭增大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計劃上에는 1965~71 年間的 雇傭增加率을 21.7%로 策定하여 앞에서 본 總人口의 增加率(14.3%)이나 生産年齡人口의 增加率(16.2%) 및 勞動力人口의 增加率(18.7%)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있다. 또한 1965 年에 있어서의 生産年齡人口 및 勞動力人口에 대한 雇傭의 比重 51.6% 및 92.6%를 1971 年에는 각각 54.1% 및 95.0%로 增大하게끔 되어 있고 따라서 完全失業率은 7.4%에서 5.0%로 까지 減少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同雇傭計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産業別 雇傭構造의 變動과 그 內容의 季節的 變動의 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前者에 대해서 考察해 보면 一般的으로 雇傭構造의 近代化는 農業部門의 就業構成比가 줄어드는 反面 鑛業部門의 그것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5 年計劃上的 産業別 雇傭構造의 變動을 計劃期間中 農村水産業이 5.1% 주는 대신 鑛工業이 3.2%,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業이 1.9% 각각 늘어나게 되어있어 3 次産業部門의 雇傭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韓國의 雇傭構造上으로 보아 1 次産業部門의 勞動力은 물론이거니와 非生産的으로 寄生하는 3 次産業部門의 勞動力 역시 2 次産業部門으로 吸收시켜야 할 必要性을 指摘할 수 있다면 同産業別 雇傭構造의 變動에 대한 計劃은 문제를 正確히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 後述하는 潜在失業에 대한 대책란에서 再論하기로 하고 다음 季節的인 雇傭規模의 變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前記 <第 5—7 表>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韓國의 季節別 就業狀態는 큰 變動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農家の 季節別就業變動은 1966 年中 3 月에는 4,973 千人, 6 月에는 6,868 千人, 9 月에는 5,641 千人 그리고 12 月에는 3,553 千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就業規模는 調査週間동안 1 時間이라도 收入이 있는 일에 종사한 者는 모두 網羅한 것으로서

農閑期에 있어서의 農業遊休勞動力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5 年計劃에는 開墾・定着事業을 推進한다는 外에는 同 季節的인 就業의 格差를 解消하기 위한 對策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4) 完全失業率의 減少 및 僞裝失業에 대한 對策

5 年計劃上에는 1971 年의 完全失業率을 1965 年의 7.4%에서 5.0%로 까지 引下시키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業水準의 好轉은 名目的인 의미에 불과하다. 즉 經濟活動人口가 별로 증가하지 않고 또한 就業의 內容을 經濟活動人口로서 1 週間이란 調查期間동안 1 時間 이상 收入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規定하여 完全失業率 그 自體가 현실적인 失業狀態를 정확히 反映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結果로 과거 就業의 推移를 보더라도 完全失業率은 每年 低下되어 왔으나 調查週間동안 18 時間 未滿就業者規模는 오히려 增加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래 正常的인 의미에서 就業이라면 自己 및 扶養家族의 基本的인 生活資料를 購得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計劃上의

<第 5-11 表>

農家 및 非農家別 就業構成的 推移

		經濟活動人口 (A)	就業者(B)	完全失業者 (C)	18時間未滿就 業者 (D)	C/A(%)	C+D/A(%)
全	1963	8,652	7,947	705	893	8.1	16.2
	1964	8,893	8,210	683	763	7.7	16.3
	1965	9,199	8,522	677	674	7.4	14.7
	1966	9,325	8,659	666	761	7.1	15.3
	1967. 3	8,998	8,294	704	780	7.8	16.5
國	// . 6	10,954	10,387	557	473	5.1	9.4
	// . 9	10,278	9,733	545	821	5.3	13.3
農	1963	5,280	5,129	151	560	2.9	13.5
	1964	5,442	5,255	187	643	3.4	15.3
	1965	5,437	5,270	168	575	3.1	13.7
	1966	5,426	5,259	168	675	3.0	15.5
	1967. 3	4,966	4,765	201	694	4.0	18.0
	// . 6	6,650	6,591	59	405	0.9	7.0
家	// . 9	6,015	5,907	108	737	1.8	14.0
非	1963	3,372	2,818	554	133	16.4	20.4
	1964	3,452	2,956	497	120	14.4	17.9
	1965	3,762	3,254	509	96	13.5	16.1
	1966	3,899	3,400	498	86	12.8	15.0
	1967. 3	4,032	3,529	503	86	12.5	14.6
	// . 6	4,304	3,805	498	68	11.6	13.2
家	// . 9	4,263	3,826	437	84	10.3	12.2

資料：經濟企劃院

完全失業率이 達成된다고 하더라도 統計上의 就業規模中에는 사실상 僞裝失業이 상당한水準에 達할 것이다.

〈第5—1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에 比하여 非農家가 完全失業率이 높게 나타나는 대신 農家は 18시간 미만의 就業者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都市의 不完全失業 및 農村의 潛在失業의 實情을 말해 주는 것이다.

政府의 雇傭計劃은 名目的인 完全失業率의 引下에 들 것이 아니라 實質的인 雇傭의 增大 즉 勞動力의 活用을 極大化하는데 留意하여야 할 것임에도 第2次5個年計劃上의 人口・雇傭計劃은 이러한 僞裝失業의 解消를 위한 對策은 全然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第2次5個年計劃中 人口・雇傭部門計劃上의 重要한 問題點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教授 〕